

“당신의 손길, 기적의 시작입니다.”



한국 컴패션이 뉴저지초대교회(담임 한규삼 목사)를 찾았다. 뉴저지초대교회는 미주 한인 교회 중 가장 먼저 한국 컴패션을 통해 아동을 결연한 교회로, 지난 25일을 '컴패션 선데이'로 지정했다. 이에 한국 컴패션 대표인 서정인 목사와 홍보대사로 활약하고 있는 차인표 신애라 부부가 참석했다. <윤주이 기자>

남선협, 라마단 위한 중보기도 동참 호소

남가주선교단체협의회(이하 남선협, 회장 이재환 선교사)는 오는 이슬람권의 라마단 금식 기도월인 8월11일부터 9월9일 미주 전 지역의 교회들이 '2010 무슬림을 위한 30일 중보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기도는 1992년 중동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돼 현재 30여 개국, 2,000여만 명의 중보기도자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남선협은 무슬림을 가슴에 품는 이 중보기도 운동에 미주 지역 한인교회들을 동원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지난해부터 집중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물려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라마단 기간에 무슬림은 일출 때부터 일몰 때까지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물을 포함한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않는다. 심지어는 해가 질 때까지 자신의 침도 삼켜서는 안 된다. 다만 노약자, 어린이, 환자, 임산부 등은 금식 의무가 면제된다.

무슬림은 해가 뜨기 직전 '수후르'라는 간단한 식사를 하고 해가 지면 그따위 비로소 대추야자, 양고기, 강정 등을 곁들인 '이프타르'라는 저녁식사를 하게 된다. 무슬림이 아닌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라마단엔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담배를 피거나 음료를 마시는 행위가 금지된다.

남선협은 공문을 통해 교회나 개인의 참여를 요청했다. 문의 (818)967-7004 (지재일 기자)

“9.11 현장 모스크 건립 추진은 이슬람의 전략”

하마스 지도자인 아버지 아라서 자라트나 기독교로 개종하고 이슬람 극단주의를 비판해온 모샤 하산 유세프(32)가 2001년 9.11 테러 현장 부근에 모스크를 건립하려는 이슬람의 계획을 규탄했다.

뉴욕시 이슬람 지도자들을 중핵으로 한 코르도바협약체(Cordoba Initiative)와 무슬림발전

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왜 하필이면 이 특정한 장소가 선택됐는가? 건립 비용으로 1억 달러나 들어갈 모스크에 대한 필요가 그 정도로 커서인가? 맨하탄에 모스크를 지을 곳이 이 곳밖에 남지 않아서인가?"라고 반문한 뒤, "모스크가 지어질 곳이 이 곳으로 선택된 것은 (그것 자체로) 강력한 정치적, 종교적 성명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슬람 테러

리스트들의 공격으로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리고 2,800여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현장에 모스크가 들어선다는 것은, '화해'의 상징이 아닌 테러를 자행한 이들의 동기가 된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에 대한 '대담한 확증'에 가깝다고 그는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인들과 화해하기 원하고 선을 행하기 원한다면 차라리 병원을 짓든가 9.11 희생자 유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라"며 "자유에 도전한

고 이슬람의 실체와 관련해 사람들을 혼동시키는 대신에 인류의 보편적 이익을 위한 보다 생산적인 일들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모스크 건립안을 비난했다.

유세프는 팔레스타인 강경 이슬람 무장 정파 하마스의 창설자 중 한 명인 셰이크 하산 유세프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나, 테러의 잔혹함에 반감을 느끼면서 기독교로 개종했으며, 1997년부터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포섭돼 스파이로 활동하면서 테러를 계획한 하마스 지도자들의 체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

2007년부터는 스파이 활동을 마감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로 이주한 그는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망명을 허가받았다. 저서 '하마스의 아들'을 통해서 알라를 테러리스트에 비유하는 등 이슬람의 폭력성을 강도 높게 고발해 온 그는 미국에서 추방될지 살해될지 이라고 주장해 왔다.

<2면에 계속 >

개종한 '하마스의 아들' 유세프 주장

위한미국협회(American Society for Muslim Advancement) 등 이슬람 단체들은 그라운드 제로에서 불과 두 불뿔 떨어진 곳에 위치한 파크 플레이스 45-47 건물과 부지를 사들이고 이 자리에 15층 규모의 메가 모스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테러 희생자 유가족들을 비롯한 많은 미국인들의 반감을 낳고 있는 이 계획에 미국 내 이슬람 전문가들도 비판적인 견해를 표

시하고 있는 가운데, 저서 '하마스의 아들(Son of Hamas)'로 이슬람 극단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유세프 역시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메가 모스크 건립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유세프는 이 자리에 모스크를 건립하겠다고 하는 의도는 이슬람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종교 간 관계를 증진시키고 관용 정신



2001년 9.11 테러 발생 1주일 후 촬영된 현장 사진. ©U.S. Navy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삼성이 하의 다룹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시내· 타주이사· 차량운송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많이 쓰지도 않는 집전화에 매달 높은 기본료를 지불하고 계세요?

패밀리일괄 플랜

\$4.99/월

우리집 전화비 고민해결!

👏👏 **아이 코리아 넘버를 잡아라!**

지금 가입하셔서, 나만의 한국번호로 한국과 무제한 통화하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800.872.2902

1-800-875-8318 고객지원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경보호를 위해 청구서 대신 안전하고 간편한 온라인 크레딧 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놓칠 수 없는 기회!”
7월 16일~7월 31일
30일 환불보장

● 로컬장거리, 국제전화 사용이 많으세요?

GLOBAL PLAN 글로벌 플랜 \$9.99/월, TAX 포함 (*초기가입비 포함, 이후 \$24.99/월)	GLOBAL PLUS PLAN 글로벌+ 플랜 \$14.99/월, TAX 포함 (*초기가입비 포함, 이후 \$34.99/월)
---	--

● 미국 전화번호 1개 + 한국 전화번호 1개 제공!
● 착신 무제한 무료!
● 초저요금으로 로컬, 장거리, 국제전화 이용가능!
미국, 캐나다 2센트/분, 한국 유선전화 2.6센트/분
● 기존번호 이전 가능! ● 각종 부가 서비스 무료 이용!
● 전세계 아이토크비비 고객간 무료통화!

● 한국인을 위한 아주 특별한 플랜!
● 글로벌 플랜의 모든 혜택은 기본
한국 휴대전화로까지 무제한 통화!

iTalkBB 사업자 모집

한인 출신이 많은 매장을 보유하신 분 또는 활동적인 분을 사업자로 모집합니다.
상담문의: 213-784-1133 (동부시간 오후 1시~오후 9시)

“미국의 영적 부흥은 한인들의 사명”

김춘근 교수, 8월 15일부터 제3차 전국기도순회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임재 하심으로 ‘이제라도’ 영적 산사태 같은 기도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방문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부흥과 각성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자마대표 김춘근 교수. 그는 아내 김성매 권사와 아들 풀과 함께 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 1994년 42일간 자동차로 12,000마일 이상 다니며 각 도시를 위해 중보하고 미국의 영적 각성과 회개, 부흥을 간구하며 전국기도순회를 이어갔다. 1998년 김춘근 교수와 강운영 목사는 80일간 2만 마일 이상을 운전하며 더 많은 도시를 방문하며 제2차 중보기도 순회를 마쳤다.

2010년 8월 15일, 김춘근 교수는 다시 제3차 자마 전국기도순회를 떠난다. 이번엔 162일간(2011년 4월 15일까지) 40개 주를 순회하게 되며 각 지역 교회, 학교 등과 연합해 미국의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중보기도자들을 세워나갈 예정이다. “대학교수 38년간 역사

상 가장 대학가가 타락한 시기입니다. 청소년 범죄율은 매일 치솟고 미국의 정치, 경제, 도덕, 윤리 등 전면적 타락에 처해 있습니다. 정교도 신앙을 바탕으로 세운 나라 미국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도록, 미주 한인들 간 절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 부흥과 회복이 시작되리라 확신합니다.”

김춘근 교수는 “미국의 정치, 경제, 과학 등 각 전문분야에서 한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의 능력을 가진 한인 디아스포라가 없이는 미국의 부흥이 이뤄질 수 없다”며 개인의 삶을 넘어 미국을 심장에 품고 중보기도로 헌신할 것을 도전했다.

미국의 부흥, 한인 2세 헌신자들과 함께!- GLDI

김춘근 교수는 특히 기도의 능력을 가진 한인 2세 헌신자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마는 세계지도자개발학교(이하 GLDI, Global Leadership Development Institute)를 방학마다 40일간 개최하

고 있다. GLDI는 미국과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자녀들에게 기독교적 세계관과 복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한인을 세계에 흩어놓으신 하나님의 비전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인격과 리더십 계발하기 위한 것이다.

40일간 목회자, 선교사 등 최고의 기독교 지도자들로부터 훈련 받으며 비전을 품은 학생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모든 전문분야를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주역으로 훈련하는 것이다.

우리가 미국의 주인돼 부흥의 시대를 열자!

“청교도 신앙의 역사에서 시작된 미국이 지금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며 김춘근 교수는 “기독교인들이 미국을 내나라라고 주인된 마음을 갖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자”고 말했다.

아메리칸 드림이 하나님의 킹덤 드림으로!

김춘근 교수는 “존 파이퍼 목사가 이미 아메리칸 드림은 저주라고 말한 바 있다”며 “권력과 명예, 섹스 즉 언홀리 트리니티(Unholy Trinity)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킹덤 드림(Kingdom Dream)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지금 이 때에도! - 2011년 전국 자마 컨퍼런스에서 기도의 불꽃 이어

김춘근 교수는 “2011년 4월 15일 LA에서 전국기도순회를 마친 후, 7월 6일부터 9일까지 펜실베이니아 컨벤션 센터에서 ‘이제라도(Even Now)’라는 주제로 전국 자마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4일간 전국에서 모인 중보기도자들이 함께 간절히 미국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 교수는 “미국의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중보기도자들과의 온라인 네트워킹도 이뤄나갈 것”이라며 중보기도 블로그를 개설, 미국뿐 아니라 한국, 유럽 등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들과 함께



김춘근 교수. ©지재일 기자

미국을 위해 함께 기도할 것이라고 했다.

김춘근 교수는 8월 15일 및 16일, 17일 3일간, 봉사자들과 함께 전국기도순회를 무전여행 형식으로 시

작할 예정이며, 순회 일정과 관련된 기도제목과 필요사항들을 웹사이트에서 게재했다.

prayertour.jamaglobal.com (지재일 기자)

<1면에 이어 >

유세프는 한편 이 블로그 글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지나친 이슬람포비아 경계가 이슬람 극단주의의 위협을 간과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구인들이 이슬람을 불쾌하지 않게 하려고 어떤 노력도 서슴지 않을 것 같은 반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미국의 벌어진 상처에 산을 부을 생 각밖에는 안하는 것처럼 보인

다”고 꼬집기도 했다.

유세프 외에도 많은 미국 내 이슬람 전문가들은 메가 모스크 건립안에 반대를 표시해 왔다. 미국 이슬람화 반대 단체인 SIOA(Stop the Islamization of America) 대표 파멜라 겔러는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뉴욕 그라운드 제로는 테러 희생자들의 공동묘지이며, 역사적으로 기념되어야 할 신성한 장소”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어디에든 모스크를 지

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이는 희생자들은 물론 그들 가족들이 이슬람 극단주의로 인해 겪은 슬픔과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 잔인한 처사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을 요청한 선교신학자는 크리스천포스트(CP)에 “이슬람 선교의 가장 오래된 수단이 그들의 문화를 알린다는 명목으로 이슬람 센터를 짓고, 지리적으로 전략적인 장소에 모스크를 배치하는 것”이

라며, 경계를 요청했다. 그는 “이슬람은 희생자 전략(victim strategy)을 사용해 그들이 서구에 의해 잘못 이해되고 있다는 식의 선전을 펼친다”며, 그라운드 제로에 모스크를 건립하는 것도 이같은 전략의 일종이라고 주장했다.

‘코르도바 하우스(Cordoba House)’로 이름 붙여진 이 메가 모스크의 건립안은 이미 뉴욕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며, 현재는 뉴욕시 기념건

축물보존위원회(Landmarks Preservation Commission)의 최종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슬람측이 사들인 건물과 부지가 ‘랜드마크’ 지위를 부여 받을 경우,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모스크를 건립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위원회의 허가 하에, 현재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SIOA 외에도 자유수호협회(Free-

dom Defense Initiative), 뉴욕스태튼섬보수유권자모임 SITP(Staten Island Tea Party), 샬롬인터네셔널(Shalom International), 이스라엘을위한연합(Unity Coalition for Israel), 9.11유가족모임(9/11 Families), 페이스프리덤인터네셔널(Faith Freedom International) 등 많은 단체들이 모스크 건립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순현정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해민, 이원삼, 박기호, 방지라, 김중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이재일 광고국장 : 이인규

지사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번호 : (213) 739 - 0408

주소 : 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정시킨분, 항소 허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법, 경계법, 도박,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일로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www.rosehills.com

로즈힐 공원묘지

100여년 역사의 정성스런 관리서비스와 가깝고 편리한 로즈힐 공원묘지를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세요!

프리웨이에서 가까운 편리한 로케이션

비교해 보면 가장 저렴한 가격! 월 \$39부터!

- ▶ LA 한인타운에서 20분 거리 ▶ 동수지리적 관점의 최고 명당
- ▶ 세계 최대 규모 단일 공원묘지 ▶ 한인 장례에 최적의 친밀한상당

묘지에서 장례식까지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저렴하게!

ROSE HILLS Memorial Park & Mortuaries
Rose Hills Mortuary Whiter #FD970

본사 (한국어 직통) 1-888-848-8707
세리토스점 [한국어문의] 1-877-767-8850
브레아점 [Brea] (562)809-7027
장의 & 장례보험 문의 (562)201-7097

35주년 선한목자장로교회 '선교와 구제' 조화

선한목자장로교회(담임 고태형 목사)는 7월 25일로 창립 35주년을 맞이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온 35년의 역사가 임기 7년째를 맞이한 고태형 담임목사와 함께 더욱 내실을 다져간다. '한 영혼을 주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 교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부터 고민하는 선한목자장로교회는 주의 제자들이 모인 교

모두 쏠려 넘어지고 배도 뒤집어질 수 있다. 교회를 담임하기 전과 후의 큰 차이는 없었지만 조금씩의 변화는 있을 것이다. 먼저는 교회가 받은 축복을 파악하고 이어가는 것이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리더십으로 바통터치가 잘 되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 방식이나 비전이 있어도 결국 그



고태형 목사. © 박상미 기자

고태형 목사, 교회의 선교적 사명 위해 훈련체계 정착

회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체계를 갖추어 가는 일에 열심이다.

-창립 35주년을 맞이했다. 소감을 말해 달라.

이민교회가 우여곡절이 많은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갈라지거나 큰 어려움 없이 화평하게 온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다. 특별히 전임 목회자이었던 임형석 목사가 담임하실 때 몬트리팩에 있던 교회가 현재 위치로 오게 되었다. 그것이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2004년 4월부터 현재까지 (내가) 목회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여기까지 오면서 큰 분쟁과 다툼 없이 35주년을 맞이했다는 것은 제일 감사하고 기쁜 일이다.

-연혁을 보니 총회로부터 '교회성장상'과 함께 상금도 받은 바 있다. 큰 꾸준히 성장해온 선한목자장로교회에 목사가 부임하기 전과 후 달라진 점이 있는가?

교회성장상은 샘스클럽, 월마트 창업주인 샘윌슨이 장로교에 기부한 돈으로 주는 상금이다. 전임 임형석 목사가 계실 때 받았던 상으로 전에 계셨던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 해오셨다. 교회가 배라고 생각해 볼 때 가다가 급커브를 돌면 배안의 사람들은

것이 교회와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목사는 교회를, 교회는 목사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친구 목사의 아버님이 원로 목사님이셨다. 그 목사님께서 '담임목회를 한다면 7년은 지나야 자기 목회를 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이제 와 보니 정말 맞는 말씀을 하셨다.

-그렇다면 어떤 목회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초신자들부터 교회 성도들까지 잘 맞는 양육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양육시스템을 잘 정착시키는 것이 과제이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공흥사역' 즉 구제를 선교와 함께 조화롭게 해 나가는 것이다. 교회가 가진 자원으로 장애인이나 홀리스, 입양아, 나환자, 북한 돕기 등 다양하게 사역할 수 있을 것 같다.

-특별히 장애인들을 위한 교회적 지원이나 컴패션 사역이 눈에 띈다.

한국 컴패션 서정인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우리교회가 컴패션 비전 트립을 다녀왔다. 컴패션 사역이야말로 교회가 바라고 있는 선교와 구제를 잘 결합한

사역이라고 생각했다. 교회 선교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잘되는지 어떤지 모를 수 있지만 컴패션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으로 그 투명성 또한 신뢰할 만하다. 거기다 우리교회가 생각하는 선교와 구제가 잘 결합된 사역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 가을 폴립비아로 또 한 번의 비전 트립을 가게 된다.

-구제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연결된 문제가 아니겠는가?

한인사회 내 이민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 좀 약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바르고 협력하는 한인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하고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 한인회 회장이나 주요 단체장들 중 대부분이 교회에 다닌다. 교회는 자원도 있고 사람도 있는 곳인데 그분들이 잘하도록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다면 먼저 교회들이 잘 연합해야 한다. 실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가 가장먼저 지원에 나서지 않나. 우리 안에 분쟁이 없어져야 하고, 한인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나아가 함께 발전함으로써 주류사회로 편입해야 한다.

-선한목자장로교회는 미국장로교단의 한인교회다. 미국 내에서 한인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

해 내야하는가?

미국의 여러 주류교단에는 젊은이들보다 연로한 분들이 많다. 선교적 열정도 과거와 같지 않고 닫혀가는 교회도 많은 등 여러 사람들이 침체에 빠졌다고 말한다. 한인교회들은 이들에게 영적인 자극제가 될 수 있다. 우리 안에 임한 축복을 쉼어림하면서 그들에게 도전은 주는 것이다.

-미국장로교 한인총회 부총회장으로 선출됐다.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되나?

미국장로교 자체가 미국인이 주류이고 한인인 3~4% 내외이다. 교단구조가 교제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런데 교회일만으로도 바쁘다. 근본적으로 목사는 자기교회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다가 보니 노회나 총회와의 일이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한다. 앞서 말했듯이 한인총회는 장로교단 안에서 영적인 도전과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것의 가교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또한 한인총회는 420여개 한인교회들을 네트워킹하고,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이민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후원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목회비전을 말해 달라. 또한 동역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한마디.

한 영혼을 주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또한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선교적 사명을 다할 수 있는가에 포커스를 맞추어 가고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에도 훈련이 필요하다. 현재 조금 맞지 않더라도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유익이 되고 영적인 성장이 되는 길이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는 성실함이 중요하다. 함께 노력하자. <박상미 기자>

동양선교교회 홍민기 목사 청빙안 통과

정식 승인서 가지고 한국 방문 예정

동양선교교회는 지난 25일 '홍민기 담임목사 청빙안'에 대한 임시 공동회의를 열고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청빙안을 통과시켰다. 동양선교교회는 주일 1~5부 예배 직후 5번의 투표를 실시, 총 803명이 투표한 가운데 반대 93표, 찬성 710표(88.42%)를 얻었다.

교회 측은 "이 같은 결과를 홍 목사 측에 E-mail로 전달했으며, 당회원으로 구성된 특별팀이 청빙에 대한 정식 승인서를 가지고 직접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회 측은 "홍민기 목사로부터 청빙 수락을 정식으로 받으면 9월 초 취임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민사회 내 가정과 청소년 사역을 돕는 '브리지 임팩트 사역원'(Bridge Impact Ministry)의 대표이자 '청소년 코스타'(Youth Kosta) 강사이기도 한 홍민기 목사는 앞서 5월과 6월 동양선교교회에서 개최된 부흥회에 강사로 초청된 바 있다.

한편 브리지 임팩트 사역원측에서는 홍 목사의 거취에 대해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박상미 기자>



동양선교교회는 홍민기 목사의 담임목사 청빙안 정식 수락을 환영하고 있다.

남성 듀오 '해바라기' 선교 집회 8월 남가주 광염교회를 시작으로

남성 듀오 해바라기 멤버로 활동하던 이광준, 조성근 씨가 선교사가 되어 '미션 해바라기'를 결성, 올 여름 미주 집회를 시작했다. 8월 1일 오후 7시 남가주 광염교회(담임 정우성 목사)를 시작으로 8월 6일(금) 오후 7시 벨리연합감리교회(담임 장동일 목

사), 8월 13일(금) 오후 7시 LA 한국문화원, 8월 14일(토) 오후 7시 비전교회(담임 박일병 목사), 8월 22일(주일) 코너스톤교회(담임 이종용 목사) 등에서 집회를 한다. 앞서 7월 27일과 30일에도 집회를 가진 바 있는 '해바라기'의 공연 요청 문의는 연합감리교회(담임 장동일 목

'한 방울의 물이 아이티의 생명으로'

스웬선교회(대표 임영호 장로)는 여전히 지진 피해 복구에 한창인 아이티 현장에 들어가 현지인들에게 정수기 제작 교육을

실시, 직접 깨끗한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단기 선교를 다녀왔다. 선교회는 정수기 뿐 아니라 야외 화장실, 공중위생 보건 훈련, 자연농업 농사 등의 교육을 실시해 현지인들이 먹을 음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임영호 장로는 "현지에서 목

이 말라 본인이 마시던 물병을 달라던 아이티 어린이들의 눈망울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며 "선교회에서 지원한 정수기, 농사 교육 등으로 아이티 재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재일 기자>

100% 믿을수 있는 대한민국 홍삼

HANSAMIN
website :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RADIO SEOUL '홈 스위트 홈'의 진행자!, 사랑을 실천하는.

월드비전 음악홍보대사, 노형건의 '한 생명 살리기 주일예배대행진'

오페라 캘리포니아의 그 열정으로!
홈 스위트 홈의 사랑과 실천으로!
지구촌의 죽어가는 아동을 위해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사랑과 나눔, 감동의 찬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생명 살리기 주일 예배 순회 일정

- 7월 25일(주일) 오전 11:00 - 구세군나성한인교회 · 933 S. Hoover St, L.A, CA 90006 · (213)480-0714
- 8월 1일(주일) 오전 10:30 - 미주성산교회 · 1111 W. Sunset Bl, L.A, CA 90012 · (213)975-1111
- 8월 8일(주일) 오전 11:00 - 스타트반석장로교회 · 4445 Quashnick Rd, Stockton CA 95212 · (209)957-9191
- 8월 8일(주일) 오후 1:30 - 카스트로벨리에텐장로교회 · 2490 Grove Way, Castro Valley, CA 94546 · (510)538-1853
- 9월 11일(토) 오전 11:30 - 다락방 교회 · 5319 N. Halifax Road Temple City, CA 92780 · (818)484-6019
- 9월 12일(주일) - 소망선교회 · 10400 Jelzah Ave, Northridge, CA 91326 · (213)507-6161
- 9월 19일(주일) 오후 12:30 - 새사망교회 · 2017 West Olympic Blvd, L.A, CA 90006 · (213)422-6966
- 10월 3일(주일) 오후 2:00 - 축복선교회 · 70328 29th Palms Hwy, 29, Palms CA 92277 · (760)367-2619
- 10월 17일(주일) 오전 10:00 - 리빙워드 연합교회 · 1494 California Cir, Milpitas CA 95035 · (408)934-3600

노형건
현 월드비전 음악홍보대사
현 사랑여성회장단 지휘자
현 AM1650 라디오서울 부국장 및 홈 스위트 홈 진행자
현 Opera California 선교오페라단 단장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M.M.)
(미국 버지니아 주 Voice Competition First place)
(미국 버지니아 주 Everett college 종교음악과 교수 역임)
(국립 합창단, 김자경 오페라단 단원 역임)
(워싱턴 오페라 단원 역임)
(미주예총 1994년 올해의 예술인 상 수상)
(2005 World Cultural & Sports Foundation Multi-Cultural & Musical Award 수상)

초청 문의전화
323-574-2747
www.rohyungkun.net

월드비전은 1950년에 한국 전쟁영웅과 미망인을 돕기 위해 설립되어 현재 100여개 국에서 긴급구호 및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비영리 기독교 구호 기관입니다. 월드비전은 전체 모금액 가운데 11.4%를 행정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해외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투명한 재정관리와 윤리적인 사역으로 지구촌 아동들을 돕고 있습니다.

김지성 목사 "성도들이여 신앙에 자부심을 갖자"

글로벌선교교회 세상의 중심에 '우뚝'



김지성 목사

-최근 홈페이지도 단정하고, 젊은이들을 위한 축제도 여는 등 사역의 포커스가 젊다.

글로벌선교교회는 젊은이사역이 활발하다. 특히 영어권 사역이 정말 잘되고 있다. 문제는 영어권이 아니다. 미국에서의 사역은 영어권에 포커스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작년부터 한어권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는 현상을 보면서 그들이 미국까지 온 이유가 분명 있을텐데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영적인 의미에서 접근했다. 그들을 위해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한어 청년부를 만들었다. 젊은이들이 친숙하게 교회로 찾아올 수 있도록 사역하고 있다.

-1.5세와 2세대를 위한 교회 설립이라는 비전이 인상적이다. 어느 교회나 청년부가 속해있는 데 교회설립이라는 비전을 내세운 이유가 있는가?

우리교회는 3대 비전이 있다. 첫째가 본질의 회복이다. 본질은 성경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가 차세대에 대한 비전이다. 세 번째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다. 바로 두 번째 비전이 차세대들을 위한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면서도 다양해졌다. 그러다보니 각자의 관심사가 정말 많이 다르다. 예를 들어 우리교회는 주일 1, 2, 3부의 설교가 다르다. 매주 세 개의 다른 설교를 준비

한다. 1부 예배 참석자들은 일찍 예배드리고 일을 하러 가는 분들이 많다. 그들을 대상으로 신앙의 깊이를 세계만을 말할 수 없다. 2부 예배는 교회의 중직자들이 많이 참석하므로 좀 더 깊은 설교를 원한다. 타켓이 다르다보니 설교의 내용도 달라지는 것이다. 가면 갈수록 이와 같은 현상은 심해질 것이다. 때문에 교회도 가능하면 동질성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신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교회가 특정한 그룹을 위한 모임으로 가는 것에 대한 신학적 비판도 있지만 신학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이 아니겠는가. 세상은 점점 다양해지고 그 다양한 신앙에도 필요가 따르는 것이다.

-이민가정이나 교회에서 2세대들은 고민의 대상이다.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가 아니겠는가.

초창기 미국은 가정과 교회가 상호 깊은 연관이 있었다.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인... 그런데 오늘날 가정과 교회는 그 색깔이 많이 달라졌다.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회와 가정의 색깔이 같아져야 한다. 2세 사역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부모님이 아이들을 교회에 모두 일임하기 때문이다. 왜 모두 맡길 수밖에 없는가? 부모들이 신앙을 잘하지 못하니까 그렇다. 반대로 교회는 2세대의 문제는 모두 가정과 부모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교회와 가정이 연결되어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을 길러내야 한다. 단순한 모임이나 프로그램, 부서나 시스템이 2세대를 기르는데 아니다.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교회와 가정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먼저 필요하겠다. 신앙은 함께 하는 것이다.

-교회이야기로 돌아가자. 언제 어떻게 설립되었는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라고 믿는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부교역자로 있던 교회에서 사임하고 무작정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했다. 교회는 생명체와 같다고 하지 않나. 시험해보고 싶었다. 확인해보고 싶었다. 그것이 1996년도였다. 그렇게 1년이 지나 서른명 정도 모이게 된 것 같다. 공식적인 탄생예배는 1997년 4월 7일에 드려졌다.

-목사님 한 가족으로 시작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서 예배당이 비좁아졌다. 비결이 있는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듯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 교회가 탄생을 무렵 같이 해보자는 제안도 있었다. 현금하겠다는 제안도 있었지만 거절했다. 앞서 말했듯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인 지, 생명체가 맞는지 확인해보

고 싶었다. 그 마음을 긍정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교회를 하나의 조직으로만 보면 안된다. 생명체와 같은 교회가 생명체다운 일들을 하면 생명은 자란다. 기도하기 보다는 조직, 공동의회, 각종회의 등 조직체적인 일들만 하니...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다. 대형교회들은 점점 대형화되어서 성장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 기독교인 수는 감소하고 있고, 세계 선교를 이끄는 미국도 달여가는 교회가 많다. 한인교회, 어떻게 해야 하나?

한민족은 대단히 경이롭다. 두뇌가 명석하고 굉장히 근면하다. 또한 희생정신이 강하다. 한국교회들이 세워진 것도 교인들의 희생이 있었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우수성에 영성만 결합된다면 본국의 성도들보다 더욱 뛰어난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일례로 우리교회 단기선

교당이 필리핀에 가서 한국어 선 선교팀을 만난적 있다. 복장을 맞춰 입고 온 그들은 실질적인 복음전도 활동은 못한다. 언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이라는 우수성에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분명 시대의 주류, 사역의 통로가 될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쓰임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영성의 부재 때문이다. 또한 차세대 지향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된다면 하나님은 엄청 들어 쓰실 것이라고 믿는다. 때문에 이 시대 영성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철저히 훈련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교회는 제자훈련을 매우 강화하고 있다.

-새로운 예배당을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 매우 큰 대지에 있는 건물을 놓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1세대들만 바라본다면 현재 예배당으로 충분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교회의 소망은

차세대에 있다. 차세대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훈련받을 공간이 필요하다. 감각적이고 다양한 것에 익숙해진 차세대들에게 걸맞은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단순히 건물로만 생각한다면 필요 없다.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배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세상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장소 말이다.

-이러한 비전을 함께 꿈꾸며 사역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의 한마디.

예배만 드리는 것은 교회생활이 아니다. 교회는 세상을 움직이는 중심지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세상은 실제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다. 교회가 통로다.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다. 때문에 신앙생활에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민교회는 더욱 자부심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세상을 움직이는 나라미국이다. 조건을 다 갖춘 곳이다. 가슴을 더욱 활짝 펴고 신앙생활을 하자.

<박상미 기자>

목회자와 사모 위한 하베스트 세미나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는 이민교회 목회자와 사모들을 위한 하베스트(Harvest)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8월 2일(월)~5일(목)까지 '성령의 시대를 향한 준비'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목

회자와 사모들의 영적 재충전과 함께 교회현장에 필요한 전문성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강사는 김종필 목사와 김은주 사모가 주 강사로 나서며 '영적 교제가 살아있는 소그룹' '살

의 변화가 있는 제자훈련'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역동적 사역' '생명의 예배' 등 교회현장을 공개하고 그에 따른 영역별 준비와 실천적 노하우를 소개할 예정이다. 문의: 213-386-2233

<지재일 기자>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가 없으세요?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지금 전화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용자,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 usajyk@gmail.com

미주장로회 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총회 직영 신학대학

2010년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접수 및 개강일 | 접수 마감일 : 2010. 8. 13(금)
 개강일 : 2010. 8. 30(월)

학제 | 학사(BA) : 128학점
 교역학석사(M.Div.) : 98학점
 교회음악 부전공 교역학석사(M.Div. in Church Music) : 98학점=30학점(교회음악)+68학점(일반신학과목)
 ESL: 57학점(Level test 실시)

구비서류 | 입학원서, 담임목사 추천서, 재정보증서(이상 본교장식) 명함판 사진(2매), 최종학교 성적 및 졸업증명서 영문 각 1통

특제 | ① 본교 졸업생들은 해외한인장로회(KPCA)의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 받을 수 있음.
 ② 본교에서 교역학석사(M.Div.) 과정을 마친 후, 한국의 여장로회 목사고시 응시자격이 있으며, 본 교단 소속 목회자는 여장로회 목사로 이명이 가능함.
 ③ 각종 장학금 혜택(교수, 교역자 자녀, 부부, 형제지대, 근로, 동문회, 산물회, 여성교회, 지교회, 지정 장학금 등)
 ④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소명의 재발견

확실한 목회 비전

미주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찾으십시오!

전임 교수 모집

지원자격 | -해외한인장로회(KPCA)교단 소속 목사 또는 대한 예수교장로회 통합측 목사
 -현재 해외한인장로회 소속 목사는 아니나 채용 후 본교단 가입이 가능한 자
 -구약, 조직신학, 역사신학 분야 Ph.D. 소지자 중 1명
 -영주권 신청에 걸려 사유가 없는 자

구비서류 | -이력서 -Ph.D. 학위 사본
 -학위 논문 표지, 목차 및 요약(abstract)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각 1통
 -신대원(M.Div.)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각 1통
 -교수 추천서와 담임목사 추천서 각 1통
 -신임고책서(1-2페이지 분량)
 -가족관계 증명서(호적등본)
 -e-mail 접수 가능(office@mijujangsin.org)

■ 접수 마감일 및 접수처 : 2010년 7월30일(금) 본교사무실

■ 기타 문의 : 이상명 교무처장 Tel. (562)926-1023 Ext.302

햇빛재단 김영일 목사, 방주교실 학부모 세미나 강의

“심각한 청소년 마약문제, 신앙만이 치유책”

“22세 청년이 학부모와 함께 상담을 왔습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1주일 전에 마리화나를 한 것을 알고 함께 온 거죠. 부모님은 자녀가 최근에 마약을 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그 청년은 이미 12세부터 부모님 모르게 10년간 마약을 했어요. 부모님이 마약 등 심각한 유해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김영일 목사

을 위한 자기중심적 해결책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죄의 뿌리가 바로 내 맘대로 살겠다는 교만한 마음인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자기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사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미국에서 자유분방한 문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청소년들. 한인 1세대들에 비해 언어적, 문화적 갈등이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그들의 주변에는 마약, 문란한 성 문화, 폭력 등 심각한 유해환경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다. 햇빛재단 대표 김영일 목사는 21일 은혜의방주교회(담임 김동일 목사)가 실시한 방주교실 1차 부모교육 세미나에서 청소년 마약 실태의 심각성에 대해 강의했다.

향을 취서 기쁨, 슬픔 등의 감정을 바꾸는 약물은 모두 마약이라며 인간을 망치는 원흉이 바로 알코올, 마약, 담배라고 말했다.

“엑스터시, 히로뽕, 코카인, 마리화나 등 마약, 쾌락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음악 문화, 인터넷 중독 등 극도로 유해 환경에 노출돼 있으나 학부모들이 심각성을 모른 채 방관해선 안 된다”며 김영일 목사는 “12세에서 21세까지 청소년 마약 중독문제가 가장 많으므로 이 시기 마약의 실체에 대해 잘 교육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을 복용하는 이유는 결국 자신의 안정, 흥분 등

마약 중독 해결책에 대해 김영일 목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가르쳐 하나님 중심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신앙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웃을 위해 사는 삶, 정신적으로 건전한 감정과 생각을 갖도록, 신체적으로 건강하도록 수면 시간, 식사, 운동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사역을 위한 햇빛재단은 마약, 알코올, 가정 문제 등을 위한 상담 및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문의 (213)703-5697

(지재일 기자)

그리스도의 향기

안드레미용실 임현자 원장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한명인 ‘안드레’라는 이름을 가진 미용실에 들어서자 찬양이 흘러나온다. 미용실과 찬양...어쩐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포근해진다. 더욱 정성스럽고 친절한 손길로 머리를 매만져 줄 것 같다.

환한 미소로 맞아주는 임현자 원장은 ‘안드레 미용실’의 세 번째 주인장이다. 전부터 사용했던 미용실 이름은 요즘 들어 그녀에게 더욱 걸맞은 듯하다.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그녀의 일터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뿌리 깊은 불교집안에서 태어나 자랐고 독실한 불교집안으로 시집을 왔다. 평범했던 일상에 찾아온 시련은 한 사람에 대한 증오심을 불타오르게 만들었고 용서할 수 없는 괴로움에 시달렸다. 그러던 중 늘 찾아오던 고객의 손이 이끌리어 교회로 인도되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아무것도 몰랐던 그녀는 예배 중에 하염없이 흘러 나오는 눈물의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누군가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담백한 사실에 그저 감사했을 뿐이다. 내대신 십자

가에 달린 분이 그저 불쌍했을 뿐이다.

그렇게 신앙생활은 시작되었다.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새벽기도회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할 것 없이 열성으로 참석했다. ‘팔아 사랑한다’라는 알 수 없는 음성은 그녀를 더욱 무너지게 만들었지만, 그때부터 그녀는 주님 안에서 다시 살게 되었다.



안드레미용실 임현자 원장

시끄러운 라디오와 세상 노래, 여기저기서 이어지는 험담, 일이 풀리지 않아서 냇던 화와 짜증... 자신의 일터가 마치 마귀의 소굴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더욱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

교회에 미쳤다고 핀박하는 가족들이 있었지만 믿지 않았다. 낮

선 사람들과는 말도 잘 섞지 않았던 사람이 먼저 인사도 하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묻기도 했다. 사람이 변해도 너무 변했다는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은혜로운 하루하루를 보내던 때에 다시 한 번 시련은 찾아왔다. 있던 직원들도 모두 나가야 할 만큼 사업이 악화되어 갔다. 하나님 뜻이라면 그대로 망해서 문 닫아도 상관없다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모두 맡겼다.

“전 기독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하나님만 꼭 붙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만 흘러나오는 안드레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곳에서 머리를 만져주는 사람들은 손님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궁금하다면 한번 가 보라.

“우리나라 구석구석에도 여전히 믿지 않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전도하고 싶어요. 전 아무것도 모르지만 전도할 때 가장 기쁘고 전도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더욱 기뻐요.”

(박상미 기자)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신다’ 출판 감사예배



예배는 8월 12일(목) 오후 6시 30분, 가든스윗호텔에서 열리며 이날 임동선 목사(월드미션대 학교 총장)의 설교, 박희민 목사(미주성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의 축사, 조명환 목사(크리스천 뉴스 위크 발행인)의 독후감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박용덕 목사(예성 미주 총회장)의 축도, 미주여성코랄(지휘 오성애 권사)중창단과 미주여성중창단의 특별 찬양순서도 마련된다.

박재호 목사는 찬송을 바로 알고 가르치며 목회에 적용해 새소망교회를 세계적인 찬양의 모범

교회로 부흥발전 시켰으며 미주 찬송가공회를 창설해 한국 찬송가의 위상을 높이고 찬송가 발전에 숨은 공로자로서 찬송 보급을 위해 업적을 남겨 2008년 11월에는 한국찬송가공회로부터 역사상 처음으로 특별공로상 제1호를 수여한 바 있다.

박재호 목사는 약관(弱冠)에 국가공무원 시험에 응시, 합격을 한 후 중앙정부행정기관에 재직하던 중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성결신학대학과 동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Canada Christian College와 서울기독대

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모교인 성결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봉직했고, 브라질 국제성서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쳤으며, 브라질국제성결신학대학 학장과 남미신교신학대학 학장을 지냈다. 현재는 서울기독대학교 객원교수이며, 브라질 기독대학 학장이다.

최근 저서로는 <말은 적게 하고 생각은 많이 하라>, <기독교 핵심 교리 100강>, <교회행정학> 등 총 10여 권의 책을 출간했다.

(지재일 기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은혜한인교회(장애인사역국 Jesus Light)는 오픈지카운티 지역의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여름성경학교를 8월 2일(월)부터 20일(금)까지 실시한다.

장애사역 담당 이상준 전도사는 “평생을 장애 자녀와 함께 가야 하는 부모님들의 힘든 부분을 조금이라도 나누기 원하는 마음

과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장애가정을 위해 이 사역을 시작했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이 전도사는 “여름성경학교 동안 예배와 찬양, 소그룹 성경공부를 하면서 장애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문의 : 714-446-6200

(지재일 기자)

박재호 목사의 신간, 8월 12일 가든스윗호텔서

새소망교회 담임이자 성결월드미션 총재 박재호 목사가 신간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신다>를 출판해 감사예배를 드린다.

Advertisement for 'God Loves Praise' book launch event. Includes title '내 부모 처럼 마음을 드리는 봉사자 모집', dates for two church events (Aug 17 and Aug 18), and contact information: 213-705-0404 / Fax: 213-351-0955,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Advertisement for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Title: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Features a cartoon girl, a photo of a man, and details about Day Care, preschool, and childcare programs. Contact: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세계성경장로교회 치유선교센터, 치유집회 가져

분자생물학 치료법 황유일 박사 치료나서



세계성경장로교회 강신권 목사(우)와 치유선교센터 소장 황유일 박사(좌) ©박상미 기자

세계성경장로교회(담임 강신권 목사)가 최근 치유선교센터를 설립, 지난 25일(주일) 본 교회에서 치유집회를 개최했다.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 소개받은 불신자들까지 초청해 성회를 이룬 치유집회는 강신권 목사의 설교와 기도 후에 진행됐으며, 황유일 박사(세계성경장로교회 치유선교센터 소장)이 치료했다.

강신권 목사는 출15:22-26장을

본문으로 치유선교센터의 설립 목적을 설명하고 "치유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며, 두 번째는 한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황 박사의 치료에 함께 하실 줄로 믿는다"고 말했다.

강 목사는 "하나님의 병원은 불가능이 없다"며 "치유선교센터는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아가 세계 선교를 위

해 힘쓰는 센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유일 박사는 분자생물학이라는 분야를 다년간 연구해 왔으며, 신체세포들의 생화학반응의 질서를 회복하여 질병의 근본을 치료,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황유일 박사는 "분자생물학 치료는 그 속도가 아주 빠르며 대부분 자연요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다. 또한 치료의 범위가 넓고 치료율도 높다"며 "이러한 치료기술이 하나님의 일에 쓰이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분자생물학이란? 질병의 원인을 신체 세포들의 기능부진으로 보고 세포 내·외의 환경을 생화학작용이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상태로 바꾸고 각 유전자들의 기능을 정상화 시켜 에너지(ATP)합성, 신호전달, 단백질합성, 단백질 이동 등 세포내의 여러 가지 연속적이고 복합적인 화학반응들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이다.

<박상미 기자>

의료선교 힘쓰는 진생당 한의원 개원예배 드려

LA 한인타운 워셔 블러버드에 '진생당 한의원'(원장 에스더 전)이 지난 20일 새롭게 개원했다. 에스더 전 원장은 "한의원 개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멕시코, 과테말라 등 해외 의료선교와 지역 불우이웃들을 위한 무료 의료 봉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개원을 축하하기 위해 전 원장이 섬기고 있는 세계성경장로교회(담임 강신권 목사) 성도들이 참석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본문으로 개

원예배 설교를 한 강신권 목사는 "진생당 한의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과 의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철학을 갖고 사회에 봉사하는 한의원이 되라"고 권면했다.

진생당 한의원 에스더 전 원장은 중국 국립요녕중의약 대학 박사학위(중의 내과 전공)를 수여했으며 라이프대학교 클리닉 수퍼바이저와 교수를 역임했다. 트리니티 한의과대학교 클리닉 수퍼바이저를 역임하는 등 특히 자궁 분야 진료와 비만, 다이어트, 출산, 임신,



진생당 한의원 에스더 전 원장. ©지재일 기자

생리통, 불임 문제 등 여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한다.

진생당 한의원 213-387-8175 3545 Wilshire Blvd #208, Los Angeles, CA 90020

<지재일 기자>

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고국체험학교 실시

미주성시화운동본부(상임본부장 이성우 목사)가 미주 한인 청소년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고국체험학교'를 8월 9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에 고국 방문을 위해 선발된 학생은 모두 25명으로, 이들은

최근 한국에 가보지 않은 일반성도 및 선교사와 목회자 자녀들이다.

학생들은 10박 11일간의 일정에서 한국교회와 청와대, 민속촌 등을 방문해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홈스테이를 실시해 미주한인 청소년들이 한국 친구들과 영어를 가르쳐 한국의 친구를 사귀는 기회도 주어진다.

이성우 목사는 "고국체험학교를 통해 청소년이 자긍심을 더욱 고취시켜 신앙생활과 학교생활을 더 잘하기 바라고, 흔들렸을지 모르는 정체성이 더욱 다져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태근 기자>

[새벽강단 5] 들로스선교교회 새벽예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한국교회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새벽예배. 한국교회 부흥의 첫 번째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척교회부터 대형교회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신앙성숙과 더불어 부흥을 소망하는 곳에는 새벽예배의 열기가 더욱 뜨겁다. 이에 기독교일보는 남가주 한인교회들의 새벽 설교를 집중 조명하여 새벽제단에서만 내리는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 개

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대제사장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제사장은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들만 되는 것이죠. 아무나 되는게 아니라 혈통적으로 구별된 자들만 됩니다. 사람 중에 택함을 받았고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먼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

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이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편지를 읽은 유대인들은 아마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히5:7)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겹세마네기도 모습을 염두에 둔 말인 것 같습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히5장 8절 아들이면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고 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까닭 없는 비판과 모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참으면서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 5장 9절.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몸소 제물이 되어 단번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박상미 기자>

들로스선교교회 '예수님의 겹세마네기도처럼...'

교회를 넘어 지역과 미주 전역의 부흥을 함께 소망하고자 한다.

지난 일주일간의 특별새벽기도회를 거치고 은혜의 여진이 남아있는 들로스선교교회(담임 황의정 목사)의 새벽예배다.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한 후 예배 말씀이 시작된다. 설교가 끝나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은 채 시작된 기도가 끝날 줄 모른다.

황의정 목사는 "예수님의 겹세마네 기도처럼 우리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자"고 권면했다.

<본문: 히 5장 1절~14절> 성경을 볼 때 누구를 위해 기록되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핍박에 못 이겨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누가 썼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바울이나 바나바, 아볼로 등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니깐, 너희 그 믿음이 예수로 인해 완성되

입니다. 자신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갈 때면 옷 끝에 방울을 달고 발목에 밧줄을 묶은 채 들어갑니다. 혹시 그 자리에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후손을 통해 세운 제사장은 본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변해 주시고 자기 몸을 바쳐 제사를 드린 예수님의 모형과도 같습니다.

예수님 위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흠이 없으셨으며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고 승천하신 분입니다. 죄 없으신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위한 제사가 필요 없으셨습니다. 다만 우리 죄를 위한 제물이 몸소 되신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비둘기 두 마리가 있어야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번제로 드리기 때문에 그 타는 냄새가 너무 역겹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죄가 그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단번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얼마나 쉬워졌습니까. 예



황의정 목사

총신디지털

Chongsin Digital Lifelong Education

모집과정

과정	학과	이수과정	지원자격
신학부	신학과 기독교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4학년) 8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교) 및 신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한 자
		(2학년) 4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 . 국내 외 신학대학(교)에서 8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각 교단 신학교 졸업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수료한 해당학년 학생 및 졸업자
신대원 전문	신학과 기독교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3학년) 6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국내 외 일반대학교(4년제)나 대학원 이상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편입학 - 학사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자 또는 타신학교에서 신대원과정 재학중인 자

특전

- 방학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수료가 가능한 연령, 성별에 상관없음
- 여목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
- 획기적인 장학제도로 학비가 저렴함
- 신대원과정 수료자는 목사고시의 필기고시를 면제함

구비서류

- 입학원서 (www.cds.re.kr 에서 접수 가능), 주민등록등본, 사진, 졸업증명서(편입자)

평생교육법 33조, 동법시행령 48, 49조 규정에 의한 원격교육기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가 인준한 사이버 신학 교육기관

“말씀 준행하여,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 되자”

국민화합과 경제번영,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제42회 국가조찬기도회가 22일 오전 서울 코엑스 D홀에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시 33:12)’를 주제로 개최됐다.

교계·정계 지도자 및 낙도지역 목회자 등 3천여명이 참석한 기도회에는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참석했다.

기도회는 식전행사에 이어 황우여 의원(국회조찬기도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했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 분단과 이념간·계층간·지역간 갈등을 하나로 묶어내고, 국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사랑과 화해, 대화와 통합의 정신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며 “여호와로 하나님을 삼은 복된 나라 대한민국이 되어 국민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아 민심에 나타나는 천심을 받아들여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민주주의를 꽃피워야 하겠다”고 말했다.

탈북자 1호인 이애란 박사(이화여대)와 박래창 사장(한국장로신문)의 성경봉독 이후 전병금 목사(강남교회)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신 28:1-6, 눅 7:1-1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전병금 목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는 것처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제42회 국가조찬기도회. 교계와 정계 등 사회 각계 지도자 3천여명이 참석했다. ©이대용 기자

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모든 명 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며 “우 리 민족이 특권적 선민의식과 배 타적 민족주의를 가진 유대 민족 을 넘어 세계 각 나라로부터 정 치·외교·문화적 신뢰를 얻고 세

제42회 국가조찬기도회... 대통령 내외도 참석

계 평화에 적극 이바지하는 최고 의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신명기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예수님께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 속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는 구체적인 비결을 찾았다. 먼저 ‘겸손’해야 한다.

그는 “예수님이 백부장의 요청 에 응답하신 것은 다름 아닌 그 의 ‘겸손함’ 때문이었다”며 “링

컨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지도자들 모두는 겸손한 사람들이 었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모든 계획과 방법과 과정을 주님께 무 를 풀어 구했던 겸손한 신앙인들 을 택하셔서 역사를 이끄신다”고

전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기도와 말씀을 붙잡는’ 민족도 뛰어난 민족이 되는 비결이라고 덧 붙였다. 전 목사는 “‘보호’가 아니라 ‘경쟁’이 우선시되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는 지금, 우리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경제 양극화와 생태계 파괴”라며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육신의 신앙을 본 받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비 정규직과 영세상인, 장애우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돌보

고 위로할 줄 알아야 선진국”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민족도 이렇게 백부 장처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믿고 기도와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며 “균건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진리 위에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오늘 참석하신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이며,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를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 주셨고, 결정적으로 당신 스스로가 예수로 성육신하셔서 당신의 지혜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하셨으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설명했다. 이후 이병석 의원(한나라당)이 ‘대통령과 국가 발전에 위해’, 조대현 헌법재판관이 ‘경제번영과 민족화합을 위해’, 이철취 제2작 전사령관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특별기도했으며, 박성철 국가조찬기도회장의 인도로 ‘대통령과 국가지도자, 국민화합과 경제번영, 그리고 남북한 화해와 평화를 위해’ 합심기도했다.

김기현 의원(한나라당) 사회로 진행된 기도회는 이외에 최규식 의원(민주당)이 개최기도, 고훈 목사(안산제일교회)가 ‘내 조국 코리아를 영원하게 하소서’ 성시 낭송 등을 맡았으며, 립인식 목사(노랑진교회 원로)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이대용 기자〉

▶ 세계기독교지도자들 국제친선조찬기도회



짐바브웨 이그네시우스 촘보 장관 겸 국회의원이 축하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오른쪽 테이블에서는 황우여 의원, 박성철 장로, 박진 의원(왼쪽부터) 등이 경청하고 있다. ©이대용 기자

각국 국회의원들이 함께 부른 ‘어메이징 그레이스’

일본, 대만, 카메룬, 짐바브웨, 한국 등 세계 여러 나라 국회의원들이 저마다의 언어로 세계인들 모두가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Amazing Grace)’을 동시에 부르는 장관이 연출됐다. 제42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이어 세계 주요 기독교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국제친선조찬기도회 자리에서다.

국내외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이날 국제친선조찬기도회는 국회의원 박진 집사(국회조찬기도회 국제위원장) 사회로 방한한 여러 인사들의 인사말 등이 이어졌다.

환영사한 국회의원 황우여 장로(국회조찬기도회장은) “이번 국가조찬기도회는 어느 때보다 은혜로웠다”며 “올해 기도회를 계기로 전세계 기독교인들이 연대해서 기도하는 일을 강화하면 좋겠다, 이러한 중보를 하나님이 원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도회 준비위원장이었던 박성철 장로(국가조찬기도회장은)는 “국가조찬기도회는 친교 모임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는 모임”이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외국 대표단들의 축하메시지도 이어졌다. 특히 방한한 외국 국회의원들은 냉전 종식 이후 유일한 분단 국가인 남북한의 대치와 천안함 폭침으로

시작된 위기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 위기가 극복되고 조속한 평화통일이 이뤄지기를 기원했다.

이따른 방한으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7인의 도이 류이치 의원(일본 국가조찬기도회 대표)은 “일본에서는 수백 개의 신이 있어 한 사람이 두세 개의 종교를 가진 경우도 많아 기독교 인구가 전체의 1%를 넘지 못하는 벽이 되고 있다”며 “일본 내 기독교인들은 8명에 불과하지만 종교집회를 거부하는 의회 건물 내 방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매달 모여 기도와 설교, 간증 등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19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날아온 이그네시우스 촘보(Ignatius Chombo) 짐바브웨 국회의원 겸 장관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야나 진·보수 등) 어떠한 입장에 있든 ‘최고의 국회의원’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입법활동을 해야 한다”며 “이웃을 위한 법을 만들 때 ‘독특함’과 지혜를 구별해 제대로 된 관점에서 하나님의 법을 먼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왕 감찰원장은 “한국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비결은 한국에 기독교 인구가 25%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정부 관리들과 국회의원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말했다.

〈이대용 기자〉

바이블 엑스포축

“준비상황 순조로워”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 고문 위촉 등 최근 소식 전해

8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열리는 THE BIBLE EXPO 2010(더 바이블 엑스포) 주최축이 현 준비상황을 알려졌다.

(주)더바이블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조규민)는 최근 한나라당

제18대 국회의원 이범래 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이 의원은 현직 변호사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국민생활 안전대책단, 서울시장 구로갑 당협 위원장이기도 하다.

엑스포축은 또 (주)지엔뷰와 3D와 4D 상영관을 입점계약 체결했다.

상영기간은 엑스포가 폐장하는 날까지다. (주)지엔뷰는 디지털로 촬영된 2D 영상을 3D 입체영상



(왼쪽부터 순서대로) 더 바이블 엑스포 2010 조직위원회 정명태 교수,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 (주)더 바이블엔터테인먼트 조규민 대표이사, 더 바이블 엑스포 2010 조직위원회 이세홍 목사.

으로 자동변환하고 기획부터 편집까지 전과정을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제작전문회사다.

특히 (주)지엔뷰는 최초로 주요한 구약성서 내용을 토대로 3D와

4D 영상을 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엑스포축은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대표이사 조성훈 목사)와 입장객 30만명에 대한 선구매 협약을 체결했다.

〈김진영 기자〉

www.seattleonnuri.com

담임목사 청빙 공고

워싱턴주 Lake Forest Park에 위치하고 있는 시애틀 은누리교회 (미국 C&MA 교단 소속)에서는 지난 16년간 시역을 담당해 오신 김재은 담임목사님의 은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후임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조건

- ①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 ② 전일목회 경력 5년 이상 되시는 분
- ③ 한국어와 영어 구사가 가능하신 분

제출 서류

담임목사 지원서 (Application Form) : 양식은 은누리교회 website, www.seattleonnuri.com에서 download
 최근 인물 사진 1장
 자기 소개서 - 본인의 성장 배경, 신앙 간증, 목회 비전, 지원 동기 포함. (2~4 page)
 소속 교회 최근 주보 1장
 설교 2 회분 (CD, DVD, 또는 Website Link)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출 장소:
 Onnuri Church Attn: PSC Chair
 20150 45th Ave NE Lake Forest Park, WA 98155-1710
 Tel: 206-371-5934 (PSC Chair)
 Email: psconnuri@gmail.com
 (PDF 파일이나 워드파일로 서류 제출 및 문의 가능)

제출 기한: 2010년 9월 30일

GLOBAL VISION BANK

글로벌 비전 뱅크

기증하신 분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에서 선교사역에 필요한 자동차 도네이션 하실 분을 긴급히 찾습니다.

도네이션된 자동차는 글로벌 비전 뱅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귀하께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는 케리그마(말씀선포), 디아코니아(섬김), 디다케(교육)의 통전적(Holistic) 선교 훈련을 지향하며, 21세기 이 시대의 지구촌 교회들이 성령의 새바람으로 부흥의 시대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 글로벌 비전 뱅크로 연락 바랍니다

Tel. 213-718-1512

글로벌 비전 뱅크 상임 대표 표세홍 목사

이광선 대표회장 “한상렬 목사 발언, 책임 물어야”

한기총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월 12일 정부 승인 없이 무단 입북한 한상렬 목사가 22일 평양 인민문화공전에서 가진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비판하고 소속 교단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상렬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지칭해 “천안함 희생 생명들의 살인 원흉”이라고 하고,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권의 합동 사기극일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북녘 조국은 진정으로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전쟁 위기감 속에서 평화 의지가 분명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이광선 대표회장은 “한 목사는 북한의 핵개발과 천안함 폭침으로 빚어진 남북 긴장의 책임을 영등하게 우리에게 돌리는 북한의 위장평화 선전에 철저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개인 영웅주의적 주장이, 목사는 직함 때문에 한국교회의 입장인 것처럼 오도되고 한국교회 8·15대성회가 희석되는 것을 극히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목사는 이어 “한 목사의 소속 교단에서는 묵인하고 동조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법에 따라 한 목사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광선 목사는 언론에 보도된 한상렬 목사의 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입장 표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일반 언론에 보도되어 한국교회 전체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이 되었다”며 “사실 확인을 하고 바로잡는 일을 소속 교단이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北 정권은 양심 마비, 인권법·난민입양법 등 추진할 것

이광선 대표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외에도 한국교회 주요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먼저 북한 인권과 식량 지원 문제

기자회견 갖고 소속 교단에 해결 요청

에 대해 “북한 공산정권은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탈을 쓰고 주민을 죽이고 죽게 하는, 양심이 마비된 사교집단으로서 핵개발과 선군정치에만 몰입해 왔다”며 “결국 북한 주민들은 한국전쟁 후 60년 동안 처참한 인권 상황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중국

의 북한 점령에서는 이를 면하고자 탈북했다가 인신매매나 성폭행으로 인해 태어나 인권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고아들이 약 3천명에 이른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북한 공산 정권에 의해 간

하고 굶주리고 맞고 찢기고 병들고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의 절규하는 소리, 피의 소리에 땅이 통곡하고 하늘이 탄식하는데, 이 소리를 듣고도 침묵하는 것은 자유인의 양심도 신앙인의 양심도 아니다”라며 “이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외치는 행동이 시대의 양심”이라고 했다.

한기총은 이를 위해 최근 미국에서 열렸던 KCC 북한인권대회를 오는 11월 4-5일 한국에서 개최, 통국 기도를 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 대표회장은 “북한인권법은 물론이고 3천여명의 고아들을 국내로 입양할 수 있는 법을 속히 제정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또한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식량보내기운동’도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WEA 총회 유치, WCC 총회에 대한 반작용 아니다

WEA 총회 유치에 대해서는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뉴욕에 있는 WEA(세계복음연맹) 본부를 방문해 진지한 논의를 가졌다”며 “여기서 작년 12월부터 진행돼온 합의 과제들이 검토됐고 재확인했다. WEA는 이 논의의 합의 결과를 가지고 별도의 회의를 가진 후에 흔쾌히 대한민국 서울 개최를 승인하고, 10월 이를 공식 발표했다”고 보고했다.

한기총은 2009년 6월 9일 WEA에 정회원으로 가입했고, 11월 5일 2014년 총회 유치의향서를 제출했

다. 이 대표회장은 “한기총이 가입 13개월 만에 WEA 총회를 유치한 것은 한기총 21년 역사 이래 세계교회의 주목을 받는 가장 빛나는 쾌거”라며 “금년 연말부터는 WEA와 한기총 양측 준비위가 실무 협의를 갖기 시작할 것이고, 이를 위해 11월 22일경 제프 터니클리프 국제대표가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이광선 대표회장은 “WEA 총회 유치는 절대 WCC 총회에 대한 반작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WEA와 WCC는 각자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고, 한국교회가 두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명실상부하게 세계 교회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두 총회가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국가 발전,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감정과 이해관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국교회 8·15대성회에 대해서는 “불과 20여일 남았다. 8월 15일 오후 4시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지방과 해외 등에서 한국교회 전체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100만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 대표회장은 “지난 역사의 질곡 속에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이끌었듯,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대성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기총 이광선 대표회장이 무단 입북과 친북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한상렬 목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류재광 기자

이 대표회장은 “8·15대성회 개최는 모든 소속 교단과 구성원들이 찬성해서 결의된 만큼, 다 함께 참여해 큰 찬기가 되길 바란다”며 합동측의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합동은 한기총의 중요한 멤버이고 장자 교단이며 훌륭한 교단이다. 연합사업에 함께 힘써줄 줄 믿는다”라고 밝혔다.

이광선 대표회장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8·15대성회, WCC, WEA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개인적·집단적 감정이나 정치적 목적 및 이해관계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며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재광 기자)

구세군, 세계 최대규모 빌딩 헌당... 본부로 사용 예정

지하6층 지상17층

구세군대한분영(사령관 전광표)은 24일 새로 지어진 서울 충정로 구세군 아트홀에서 ‘구세군 한국선교 100주년 기념빌딩’ 헌당예배를 드렸다.

구세군은 지난 1991년 선교 2세기를 열어가 새로운 교두보 마련을 목표로 ‘구세군 충정로 자산 개발계획’을 세워 군국자립현금 100억원을 모금하는 등 건축계획을 실행했다.

이후 90년대 중반 IMF 사태로 건축계획을 잠정 유보하기도 했으나 상암동 구세군 부지를 매각, 600억원을 확보해 지난 2006년부터 선교빌딩 건축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헌당예배에서 서기장관 박만희 정령은 “충정로 구세군 빌딩은 지하 6층 지상 17층 규모로 구세군 선교를 나타내는 뜻단배의 모습을 형상화한 건축물”이라며 “구세군 업무시설을 비롯해 근린생활시설, 종교문화집회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부로 사용될 빌딩 옆에는 구세군 아트홀도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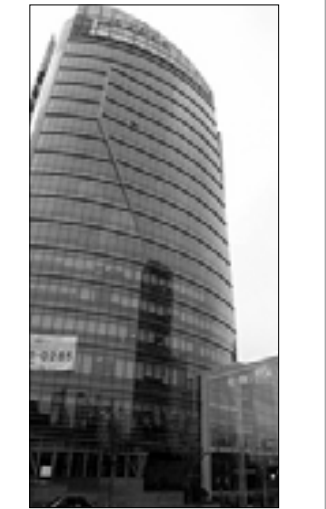
예배에 참석한 국제 구세군 쇼어 클럽턴 대장은 “지난

2008년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건축 예정지는 단지 공터일 뿐이었다”며 “결국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성공과 성취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건물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현재 정동 중앙회관에 자리한 구세군 본부는 총정로 100주년 빌딩이 세워짐에 따라 이곳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며 정동 중앙회관은 역사박물관 및 청소년 교육센터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신축된 한국 구세군 100주년 기념빌딩은 세계 구세군 빌딩 중 최대 규모라는 평가다.

(김진영 기자)



새로 지어진 구세군 충정로 빌딩



8·15대성회 기념 목상집 발간 감사예배에 참석한 교계 지도자들. ©류재광 기자

8.15대성회 前 15일간, 한국교회를 말씀으로 적신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희망, 목상집 발간

8월 15일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하는 1백만명 규모의 연합집회를 목표하고 있는 ‘한국교회 8·15대성회 조직위원회’가 기념 목상집 「예

수 그리스도, 세상의 희망」을 발간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희망」은 이번 대성회의 뜻을 기리기 위해

발간된 것이다. 특별히 15회에 걸쳐 말씀을 목상할 수 있도록 구성돼, 한국교회 전체가 8월 1일부터 대회가 열리는 8월 15일까지 15일간 매일 새벽 이 목상집으로 말씀을 목상하고 기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22일 오후 6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날 예배에서 이광선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 목상집을 통해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되어서 한국교회와 모든 민족에게 예수가 소망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발간취지를 설명한 이정익 목사는 “준비기간은 짧고 동원 목표는 너무 방대하기에 염려도 많고 분주하지만, 차질 없이 잘 진행돼 감사하다”며 “이 목상집 발간하게 된 근본적 동기는 이 성회가 행사로 끝나지 않고 이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자, 그리고 기도도 나아가자, 그리고 같이갈기 찢겨진 한국교회 역량이 모이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영일 목사는 “성회에 모여서 6·25의 비극과 8·15의 감격을 되새기자”고 밝혔다.

(류재광 기자)

지난 1700년 동안 교회가 잘못 사용한 선교의 개념을 회복하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선교의 원형을 회복하여 교회가 참으로 가이할 진정한 선교의 길을 제시할 혁명적인 저서로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가 함께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방동섭 목사의
최저의
선언!

왜 이 책이 중요한가?

- “이 책은 감추기 아나라 감추기를 하고 싶은 책이다.” - (대한선교사협회) 대표
- “선교의 종교개혁적 서막이라고 볼 수 있다.” - 유관지 박사(북한교회연구원(MORC) 원장)
- “선교의 개념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책은 지금까지 한국 신학계에 없었다.” - 김성욱 박사(총신대 신학교학원 교수)
- “선교학의 새로운 시평을 열어준 책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갈망하던 책이다.” - 김학용 박사(합동신학대학원 교수)
- “21세기 신학계에 가장 의미있는 저서들의 하나가 될 것이다.” - 신정규 박사(고신대학교 교수)
- “누구나 선교를 말하려면 이 책을 읽어야 할 수 없다.” - 김홍만 박사(국제신학대학원 교수)
-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무슨 ‘반복’을 해야 할 책이다.” - 오운문 선교사(글로벌비전 선교사)
- “모든 선교사들에게 하는 말을 읽는 엄청난 영적 에너지를 제공해서 될 것을 확신한다.” - 이길소 선교사(Global Vision Foundation 대표)
-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왜 모든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알게 되었다.” - 신동철 선교사(GMC 지구촌선교공동체 대표)

• 구입처: LA기독교서점, 미주성산교회 T. 213) 975-1111, E-mail: dongsubbang@gmail.com

RCA내 한인 노회 구성 논의 시작돼

현재 한인 노회가 구성되어있는 미국 교단은 PCA, PCUSA 등이다. RCA (Reformed Church in America) 개혁장로교회 안에도 한인 노회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19일 오후 7시 뉴저지한 마음교회(담임 오요한 목사)에서 열린 뉴저지 지역 월례회에서는 '교단 내 한인노회 구성'을 두고 간담회가 열려 뉴욕, 뉴저지 목회자들의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한인 노회 구성 움직임은 최근 일이다. 10여 년 전에도 노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구성되지 못하고 무산된 적이 있었다. 이후에도 노회 구성에 대한 한인 교회의 의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레이트 팰리세이

드 노회 내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노회 구성에 대한 건이 대두됐다. 이번에 노회가 생성된다면 RCA 교단 내 최초가 된다. 16세기 네덜란드 개혁교회 뿌리를 둔 RCA교단은 북미주 내 1천여 개 교회가 있다. 이 중 한인 교회는 40여개이며 그 중 70% 이상이 뉴욕, 뉴저지 지역에 있다. 그레이트 팰리세이드 노회 내 한인 목회자들은 "독립 조직을 만들어야 한인 교회가 헌신, 발전할 수 있다"며 노회 조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RCA교단은 현재 조직 당회가 4개 이상이면 노회를 생성할 수 있다.

〈한인 노회, 필요하다〉

교단마다 차이는 있으나 노회는 목사 회원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개교회에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이다.

노회 구성을 주장하는 목회자들은 '의사 소통 부재로 인한 발전의 한계'를 이유로 내세웠다. 언어의 한계가 크다는 것이다. 고제철 목사는 "교단 회원으로서 사명을 다하고자 하나, 총회 석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없고, 의견을 내기 힘들다. 총회에서 한인 목회자를 위해 통역기를 제공하기도 했으나 한계가 있다"며 "현재 상태에서 계속 머무를 수는 있으나 발전할 수는 없다"고 노회가 생성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재홍 목사는 "한인 총회

가 구성된다면 원활하게 많은 한인 교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한인 총회 생성을 주장하는 목회자들은 "언제 구성하든 거쳐야 할 방법과 절차는 같다. 기질과 문화, 언어가 다른 총회 내에서 들리려고 있고 싶지는 않다"라며 "노회가 조직되면 전국적으로 생동감이 있는 한인 모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 노회, 필요한가〉

목회자를 세우고, 한인 교회 수를 늘려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교단 내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또 다른

측면도 생각해봐야 한다. 교단 소속이 자율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교단 가입은 개교회, 목회자 개인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지 교단이 강요하지 않겠다는 점이다.

RCA 교단 내 자원과 조직, 영향력을 혜택 가운데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 노회가 생성된다면, 지금의 한인 사회 같이 벽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인 사회는 자체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 성장해왔지만 주류 사회, 타 민족 커뮤니티와의 교류는 전무하다시피하다. 이민자들이 현지 문화에 동화될 수 있어야 진정한 다문화가 생성될 수 있다. 다문화권 내 언어의 장벽은 개인적인 문제이며 노력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또 다른

고리가 약해질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정치세력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 한국적인 권위를 유지하는 모습은 우려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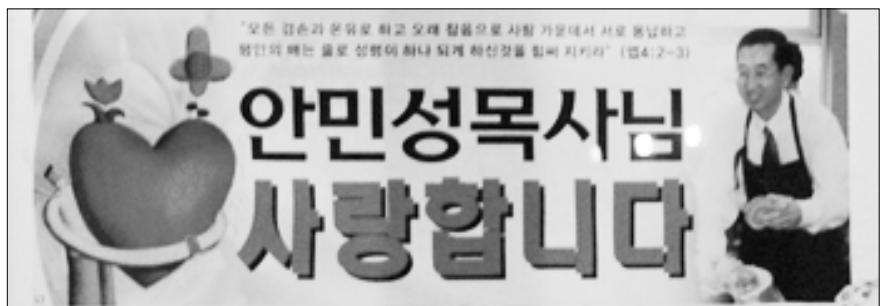
존 힌스트라 목사는 이에 "한인 교회를 관장하는 협의회(Council)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존 힌스트라 목사는 "수년 내로 한인 노회가 생성될 것이라는 건 안다. 그러나 향후 몇 년간은 협의회를 조직해 함께 지내고,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한인 노회 구성에 대한 건은 좀 더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황영진 목사 등 한인 교회 대표 8명은 22일 교단 총회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만난다.

〈윤주이 기자〉

성도들 지지에도 불구하고, 안민성 목사 사임서 제출

뉴욕장로교회, 다시금 혼란 속으로...



'안민성 목사님 사랑합니다' 배너는 교회 곳곳에 달려있다.

교회를 사랑하는 교인들의 뜨거운 기도에도 불구하고 뉴욕장로교회 문제가 심각해지고만 있다.

안민성 목사가 사퇴 의지를 밝힌 지 한달이 채 되지 않아 사임서를 당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당회원들도 동반 사표를 제출했다. 안민성 목사는 사역에 대한 입장 차이로 오랜 기간동안 당회와 갈등을 겪었다. 보수적인 KAPC 교단 소속의 뉴욕장로교회의 분위기는 성령과 기도를 강조하는 안 목사의 사역 방향과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지난 4월 3주간 안 목사는 사역을 내려놓고 아이합(IHOP)으로 기도하러 다녀왔다. 이 후에도 갈등은 수그러지지 않았다. 결국 7월

첫 금요 기도회를 통해 안 목사는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에 교회는 7월 5일부터 10일까지 교회를 위한 전교인 금식기도를 실시했으며 같은 기간 매일 오후 8시 30분 본당에서 기도회를 가졌다. 기도회에는 1백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했다.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 제목을 놓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했다. 통회하는 성도들의 목소리는 본당을 메웠다. 회개,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 교회를 세워달라는 성도들의 마음은 뜨거웠다. 교회는 기도와 함께 안민성 목사를 지지하는 1,500명 이상 교인들의 서명을 받았다. 이에 11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제직회는 연기됐다. 그러나 교회를 사

임하겠다는 안 목사의 의지는 꺾지 못했다. 또한 이를 둘러싸고 안 목사를 지지하는 당회원들과 반대하는 은퇴 장로들의 갈등은 이후에도 계속 드러났다. 대다수의 한인 교회는 개혁 목회자가 사임한 후 후임 목회자 청빙, 후임 목회자와 당회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분열되는 수순을 겪는다. 뉴욕장로교회도 젊은 목회자의 부임과 함께 그동안의 아픔을 씻고 재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교계의 기대를 한껏 모았다. 그러나 여타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노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주이 기자〉



전임회장 이영섭 목사(좌)와 신임회장 장석진 목사(우)가 악수하고 있다. 지난 12차 총회 사진. ©뉴욕기독일보 DB

뉴욕 교협, 아이티선교회에 헌금 전달

작은 교회 정성 모아 18,912불

뉴욕 교협이 아이티선교회 미주본부(대표 장기수 목사)에 현금 18,912불을 전달했다. 교협은 22일 오후 3시 사무실에서 현금 전달식을 가졌다.

현금은 개혁, 소형 교회 42개와 8명의 개인으로부터 20,378불이 걸렸다. 이 중 수수료 등을 공제한 18,912.21불이 전달됐다.

장기수 목사는 2002년부터 아이티 공화국에 선교를 시작했다. 2004년부터는 현지 선교사를 돕기 시작했다. 2005년에는 현지에

비전 센터를 세웠고 2006년에는 선교사를 직접 파송했다. 올 초에는 뉴욕 교협, 목사회, 국제사랑재단 관계자들을 인솔해 현지에 다녀오기도 했다.

장 목사는 "아이티 공화국은 치안 문제가 심각해 사람들이 그다지 드나들지 않았던 곳이나 지진 이후 전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의하면 현재 아이티 공화국에 필요한 것은 식량이 아닌 물이다. 세계 각국의 원조로 먹을 것

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물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마실 물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상태라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 목사는 "6천~8천불이면 한 마을에 우물을 파줄 수 있고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집집마다 정수해서 마신다면 물 문제는 해결된다"고 전했다.

그는 아이티 공화국에 "장, 단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욕 교협은 "정성을 모아 준 교회들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윤주이 기자〉

결혼 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비전케어, 가나 캠프에서 129명 무료개안수술

비전케어(Vision Care Service, 이하 VCS) 미주법인 7월 월례회가 22일(목) 오후 7시 폴스처치 소재 MetLife Insurance office에서 열렸다.

이번 모임에서는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가나에서 진행했던 무료개안수술 캠프(74th Vision Care Eye Camp)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가나 캠프에는 한국에서 의사 3명, 간호사 4명 등이 참여했으며, VCS 미주법인에서는 열린문장로교회 김기우 장로, 윤유식 집사, 학생 4명(Mickey Lee, Daniel Lee, Rachel Cho, Daniel Koh)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이번 캠프기간 803명이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129명이 개안수술을 받았다.

지난 감비아 캠프에도 참여했던 김기우 장로는 “가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지 의료진들의 훈련이 잘되어 있어 협력이 잘됐다. 캠프에 찾아온 환자들을 현지 의료진들이 캠프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과 관찰을 할 수 있도록 폴더를 만들어 주었으며, 현지 의료진들에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진 수술법 및 환자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뤄져서 더욱 효과적인 캠프가 됐다”고 보고했다.

또한, 김 장로는 “이번 가나 캠프는 KOICA, 주가나 대한민국 대

사관, 가나 한인회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었으며, 한인들이 모여 사는 테마 지역에서 캠프가 진행돼 한인들과 연결된 현지인들이 많이 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

구축돼 있었다. 개안수술을 하려면 수술실을 비롯해 여러 가지 하드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지 병원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VCS 미주법인을 세운 목

수술이라고 해서 안과의사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환자를 접수하고 줄을 세우고 배치하는 일, 수술 전 동공이 커지게 하는 약들을 나눠주는 일 등 할 일이 한두

것들이 쉽게 깨지고 친해질 수 있었다’는 간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지난 7월 초에 열린 임원회에서는 VCS 미주법인의 틀이 구성됐다. 총무(Executive Director)로는 김진아 집사가 선출됐으며, 서기(Secretary)에 Jung Lee, 의료부장(Clinical)에 Sue Shin, 의료부원(Medical)에 Eunice Lee, 재정부장(Finance)에 Hyun Joon Hwang, 재정부원(Budget)에 Gina Bae, 사업부장(Commercial)에 Michael Kim, 홍보부장(Public Relations)에 Gina Lee, 법률부장(Legal)에 Steve Yun, 기획부장(Planning)에 Keywoo Kim 등을 각각 임명하고 조직을 확대키로 했다.

김진아 총무는 “July Webzine과 에티오피아 Eye Center의 제안 등이 회원들의 도움으로 훌륭하게 번역됐다. VCS 미주법인이 창단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모일 장소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신기하게 척척 해결되는 것이 감사하기만 하다”고 강조했다.

VCS 미주법인은 8월 17일 LA 한인타운 소재 Garden Suite Hotel(오후 6시30분)에서 VCS를 소개하고 서부 지부를 조직할 계획이며, 올 해 가을쯤에는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선의견들이 많았는데 함께 일하면서 그런

에는 감비아, 가나, 볼리비아, 아이티, 유카탄 등에서 무료개안수술 캠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문의 : 총무 김진아(703-354-7060, jkim@egtitle.com)

-VCS(비전케어 서비스)란?

국제실명구호단체 ‘비전케어(Vision Care Service, 대표 김동해 원장)’의 미주법인은 지난 4월 14일 열린문장로교회(담임 김용훈 목사)에서 창단식을 가졌으며, 제3세계에서 실명이나 안질환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새 빛을 선사하는 단체이다.

이미 2001년 한국에서 시작한 VCS는 올해 7월 11일에 진행된 가나 캠프까지 총 74회에 걸쳐 무료개안수술 캠프(Free Eye Camp)를 진행했다.

안과의사, 간호사, 자원 봉사자로 구성된 VCS 의료 선교팀은 지금까지 21개국 36개 도시 이상을 방문해 47,037명의 환자들을 진료했고 6,504명이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73회까지). 제3세계 주민들의 실명 원인의 50%에 해당하는 백내장 수술에 주력하고 있으며, 비영리기구로서 UN의 WHO, IAPB에도 가입돼 있다. (웹사이트 : www.vcs2020.org)

(조요한 기자)

미주법인 7월 월례회 열려, 8월 17일 LA지부 조직



VCS 미주법인 7월 월례회가 22일 MetLife Insurance office에서 열렸다

었기에 한인들에게 더욱 뜻 깊은 캠프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김 장로는 “감비아의 경우 전기가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했다.

반면에 가나는 전기와 물 사정도 좋았고, 여러 가지 인프라도 잘

적이 한국에서 가기 힘든 서부 아프리카 지역을 담당하기 위해서였는데 가나가 서부 아프리카 지역을 전략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베이스 역할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인 것 같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로는 “개안

가지가 아니다”며 “자원봉사자가 훨씬 많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으며, “미주에서 태어난 2세대(고등학생, 대학생)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캠프가 끝난 후 ‘세와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선의견들이 많았는데 함께 일하면서 그런

신앙과 학위, 갈림길에 선 그녀의 선택

기독교 가치관이 학교기준에 위배, 기독교생 퇴출 위기

미국 조지아 주에서 기독교 가치관을 지킨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배척당하고, 교육과정 박탈을 협박(?)받는 일이 일어났다. 어거스타주립대학을 상대로 지난 21일 고소장을 낸 제니퍼 키톤 양(24세)이 그 주인공.

2009년 가을학기부터 이 대학 상담교육학 석사과정을 시작한 키톤 양은 최근 기독교 교리에 기반한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상담학 과정에서 제명하겠다는 압박을 받았다. 성경이나? 아니면

상담학이나?를 강요당한 셈이다. 키톤 양이 선택한 것은 성경이다. 엘라인스 디펜스 펀드 원로 상담가인 데이빗 프렌치 씨는 “공립학교의 학생이라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퇴출을 받아서도, 개인적 신앙이 비난을 받아서도 안 될 일”이라면서 “현재 대학들이 학생의 생각구조까지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키톤 양이 퇴출까지 제안 받은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상담학 토론시간 중 동성애를 향한 자신

의 의견을 내세우면서부터 학교 내 미운 털이 박히게 된 것. 공식문서에 따르면 그녀의 주장은 이렇다. “한 개인의 성적 취향은 개인의 책임이 따르는 선택적 결과며, 어쩔 수 없는 힘에 의한 운명론적 결과가 아니다”는 것 그리고 여성과 남성은 결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서로를 위해 창조된 존재라는 주장이다.

지난 5월, 학교 측은 자체에서 제안한 치료 플랜(remediation plan) 절차를 밟을 것을 키톤 양

에게 요구했다. 당시, 조교수인 메리제인 앤더슨 윌리 씨는 교수진들이 그녀의 작문실력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동성애에 대한 생각을 염려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교수진들은 키톤 양을 만나 그녀의 가치관이 교수진들과 학교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맞지 않으며, 학교의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상담석사과정 낙제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수진들은 그녀의 동성애에 관한 시각이 상담윤리적 측면에 위배되며,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동성애자들의 사회적 출현과 활동을 비추어 볼 때 상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기독교윤리와 상담윤리의 갈림길에 서게 된 키톤 양은



교수진에게 “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상담교육학과의 현재 행동을 미루어볼 때 그들의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는 한편, “상담가로서 상담대상의 최종 목표를 고려하고, 그들 스스로가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담가로서의 꿈도 굽히지 않았다. 원로 상담가 데이빗 프렌치 씨

는 “개인의 종교적인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공립학교 졸업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이 같은 관용성이 제로(Zero)인 학교들이 미국에 의외로 많이 있으며, 이러한 행동이 하루라도 빨리 멈춰져야 한다. 제니퍼 키톤 양의 죄가 있다면, 믿음을 지킨 것 뿐”이라고 안타까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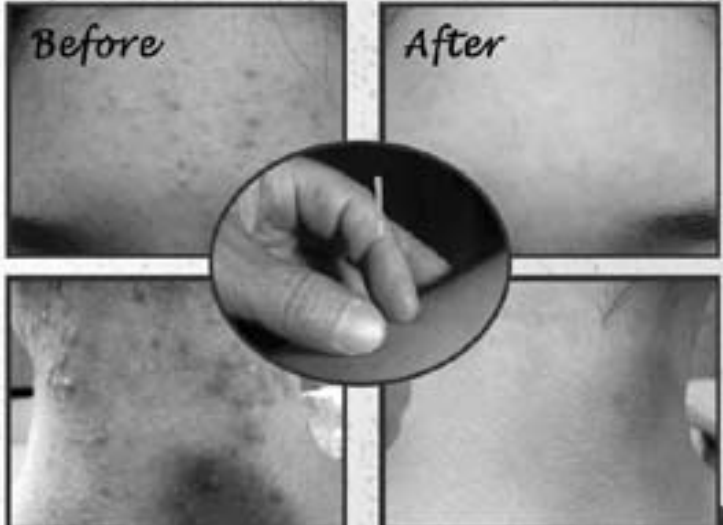
(권나라 기자)

여드름 고민 해결!

[첫 상담 무료!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제 실시]

재발하지 않는 근본 치료법
침 + 해독 + Becare

몸 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BeCare요법은 피부 내면 치료를 통해 면역 체계를 작동하게 하여, 비정상세포(여드름)를 정상세포로 바꿔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동안 Becare치료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여드름 재발없이 깨끗한 피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경산한의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의과 대학 교수

T.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 Los Angeles, CA 9006 (삼호관광 몰 2층)

개척목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트라이밸리코너스톤교회 신태균 목사 인터뷰 (1)

지난해부터 시작해 개척목회를 하고 있는 신태균 목사(트라이밸리코너스톤교회)를 찾아갔다. “남들이 여기서 말씀목상하면 설교가 잘나올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신태균 목사의 말처럼 예배당에서 보인 주변 공간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했다.

신 목사는 지난해 1월 트라이밸리코너스톤교회를 개척해 목회를 시작했다. “한 가정 한 가정 모이다보니, 한 교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네요. 이어서 하나님은 한꺼번에 많은 교인들을 보내시지 않는 것 같아요. 교인 한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는 지난해부터 교인 1명도 없이 재정지원없이 부르심에 순종해 무작정 개척교회를 시작했다. “그동안 개척교회시작하면서 많은 시간 막막하고 답답해서 사모와 함께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막막함이 찾아오고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생각날 때처럼 힘든 순간은 없죠.”

그가 지금까지 절실히 깨달은 건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 제가 일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그렇다고 뒤처져도 안 되죠.



신태균 목사는 개척목회 시작부터 성경말씀공부를 시작했다. 말씀과 기도가 쌓인 건강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싶은 소망을 품었다.

주님의 일에 비하면 인간적인 열심도 한낱 아무것도 아니죠. 무작정 열심만 낸다고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 개척교회시작과 동시에 말씀공부시작

신태균 목사는 개척목회 시작부터 성경말씀공부를 시작했다. “저희교회 교인이 된 처음 가정도 성경말씀공부에서 시작했습니다. 오피스 건물이라 성경공부시간동안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향기가 들어와서 한번은 형제, 자매들이 번갈아 공부하며 아이를 돌보기도 했습니다.”

성경공부 시간으로 한 주간 일정이 가득 차있는 가운데 3월에 예배당이 구해지기 전까지 신태

균 목사 집은 거의 매일 개방하고 있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서의 말씀을 전할 대상을 찾기도 힘든데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나면 몸은 힘들어도 영적인 힘이 솟아납니다. 말씀을 자주 전하지 못하면 금방 죽어버리고 말죠. 이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하루 4번 성경 강의할 때도 많았는데, 그러고 나면 몸은 너무 힘들어도 제 마음은 항상 기쁨과 알 수 없는 영적인 힘으로 넘쳤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첫 가정의 사연도 독특했다. “한 가정이 교회에 한번 오게 됐는데, 남편은 크

리스천이고 아내는 아직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편도 원래 다른 교회로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이상하게 믿지 않던 그 사모가 저희 교회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교회 첫 가정이 됐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세우신 것이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보내주신 분도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철저히 못하면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 아름다운 예배당을 얻게 된 사연

“올해 초에 우연히 크레이그리스트에 나와서 한번 연락했고 매니저에게 제가 목회자라고 하니 너무 좋아하며, 계약시작한지 5분도 안돼서 사인해줬습니다.”

게다가, 건물에 원래 포함된 사무실 3개 공간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자, 그쪽 사무실과 벽을 만들어 따로 구분해주고 교회만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새로운 문을 만들어 주기까지 했다.

임시로 다른 교회에서 빌려온 10개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모두 너무 기뻐했다고 했다.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느끼게 됐다고 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동안 어려웠던 시간들이 단

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장소만 구했지 교회 물품은 아무것도 없었다. 당장 새로 구한 예배당에 어울리는 십자가와 앉을 간의자들과 강대상 이 필요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한테 이메일을 드렸는데, 바로 다음날에 어느 할머니가 쓰시던 CD플레이어와 커피포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당장 음악을 틀어야 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에는 헤이워드침례교회 이진수 목사님이 교회에 남은 게 있는데 한번 보라고 해서 봤더니 모든 게 다 있었습다. 신기하게, 가져온 모든 물품 색상이 새로 이사 온 예배당 카펫 색상과 잘 어울렸습니다.”

▶ 어떻게 개척목회를 시작했나.

“사실 이렇게 개척교회 시작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신태균 목사의 말은 조금 뜻밖이었다.

그는 담임목사로서 교회를 하고 싶어 기다리던 중 2008년 텍사스 주에서 코스타 강사로 섬기면서 “나를 따라 올 수 있는냐”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됐다. 바로 그날 저녁에 텍사스에 소재한 교회에서 청빙연락이 왔다고 한다. 그는 바로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

“전 두 개 교회에 목회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될 줄 알았던 두 개 교회 모두 3차 투표에서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해 ‘그 길이 아님’을 확실히 알려주신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전 개척목회하면서 여기저기 다른 교회를 기웃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그해 10월에 김송식 목사가 그에게 산라몬 지역을 개척해볼 생각이 있다고 물었다. 신태균 목사는 산라몬 지역을 개척하기로 결정하고 일단 집을 알아보기로 했다. 그런데, 첫 번째 집은 예배당에 안 맞고 두 번째 집은 4달 후에나 가능했다. 마지막 집을 알아보려고 했을 때는 매니저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쉬운 발걸음으로 돌아가려고 한 순간에 매니저와 우연히 만났다.

교회를 위해 쓸 집을 구하고 있다고 했더니 마침 거기에 어울리는 3개 방이 있는 새 집이 있다고 했다. 게다가, 매니저는 전에 쓰던 집에게 이사 오기 위해 미리 통보해야 할 시간까지 고려해 입주 시기를 기다려줬다. “새 집인데 매니저가 입주를 기다려주다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개척목회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이 느껴졌습니다.”

- (계속) <임형진 기자>

벨뷰 컬리지에 청년 부흥 일으킨다

그리스도 안에서 청년들 세우고, 지역 변화시키는 새로운 문 열릴 것

시애틀 동부에 위치한 벨뷰 지역에 청년들을 위한 예배와 기도 모임이 시작됐다. 벨뷰 칼리지에서 진행되는 기도모임은 시애틀 형제교회가 워싱턴 대학교 안에 캠퍼스 사역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아델포스와 같이, 대학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기도모임은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한어권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장명갑 목사를 중심으로 지난 5월부터 시작 돼, 청년 부흥을 위한 기도의 씨앗을 심고 있다. 장 목사는 앞으로 벨뷰 컬리지를 중심으로 유학생 전도와 청년 회복 사역을 펼칠 계획이다.

청년 선교의 중요성은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큰 뜻과 함께 기독교의 내일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유학생 선교는 한 나라의 국가 정체성이 결정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내 학생 보다 세계화를 경험한 유학생들은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성장할 경향이 짙다. 유학생 선교는 한 나라의 복음화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

어 신학자와 선교학자들은 예전부터 유학생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벨뷰 컬리지는 선교의 중심이 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고 있다. 벨뷰 컬리지는 3년 전만 해도 일본 학생에 이어 중국 학생의 비율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한국 학생들이 가장 많다. 한국 유학생들의 전도 요충지일 뿐 아니라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등의 아시아권 학생들이 전도할 수 있는 선교의 보고(寶庫)와도 같은 곳이다.

유학전문가들은 최근 ‘벨뷰 커뮤니티 칼리지’가 ‘벨뷰 칼리

지’로 승격되면서 더 많은 나라에서 학생들이 모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학교는 유학생 선교의 황금 어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캠퍼스 선교를 통해 선교지 까지 멀리 가지 않더라도 그 나라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학교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워싱턴 주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학생들의 유동이 자유롭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청년들이 워싱턴 주 어떤 곳보다 쉽게 모일 수 있는 장소는 선교에 있어 분명 큰 이점으로 작용



장명갑 목사

할 것이다. 장명갑 목사는 “기도모임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청년들을 세우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 ✓ Smog Check
- ✓ Brake Service
- ✓ Tune-Ups
- ✓ Computer Diagnostitc

- ✓ 전기계통
- ✓ 30/60/90K Service
- ✓ A/C Service

L.A. AUTO 정비

24hr 213.247.6657

※ 목회자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엘에이오토정비 32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90006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Tel. 323-735-3180

Fax. 323-730-0112

Mon - Fri
A.M 7:00 ~ P.M 7:00

Sat - Sun
A.M 8:00 ~ P.M 6:00

SMOG CHECK \$10 off

REPAIR \$10 off

정우성 칼럼



정우성 목사 남가주광명교회

‘순수하고 깨끗한 물 마음껏 마시세요’ 정수기 광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물을 사먹는다는 상상도 못했지요. 지금은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물이 오염되어있고 깨끗하지 못합니다. 집집마다 정수기를 설치하고 정수기 물을 먹습니다.

데는 정수기의 필터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감동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기도 후에 기도하는데 담당했던 혼란했

은 육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령의 공기가 운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날 새벽 조용히 묵상하는 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 왔습니다. ‘우성이 너를 영혼의 정

로 변화하여 그 물을 마시면 산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정수기 물은 예수물입니다. 영혼의 정수기 필터는 예수님의 보혈의 필터입니다.

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물이 솟아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겔 47:9) 이 물은 하나님과 어린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물입니다. (계22:1-2)

정수기 물을 마시나요?

정수기에는 필터가 있어요. 그 필터가 눈에 보이지 않은 불순물들과 중금속, 이온성 물질 미생물들을 제거합니다. 물속에 잔존하는 냄새를 제거하고 물맛을 항상 시킵니다. 순수하고 청정수를 만드는

던 영적 분위기가 사라지고 영적공기가 새로워지고 깨끗하게 되면서 질서와 안정이 있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참 좋았고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서 쉽고 안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

수가 되게 하리라’ ‘내가 섬기는 교회가 영혼의 정수기가 되리라’ 그러면서 환상처럼 제 생각을 스쳐가는 것은 더러운 물, 오염된 물, 쓰레기 같은 물, 썩은 물이 영혼의 정수기를 통과하면서 생명의 물, 영원한 물

“명절 끝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7:37-38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임하

강단에 이물이 흘러넘치고 성도들에게 생명의 물이 흘러넘치고 교회를 적시고 가정의 직장을 지역을 나라를 지구촌에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김한요 칼럼



김한요 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2세,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유명한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2세 목사들에게 정체감을 심어 주며 동시에 1세, 1.5세 목사들과 연결하여 한인교회의 밝은 미래를 끌고 갈 차기 주자들을 키우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그의 강 의 중 ‘한복’을 통해서 배운 한국 사람의 성향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양복은 10년 전 것을 도저히 입을 수가 없어서 옷장 깊숙이 그대로 걸어두지만, 자기가 결혼할 때 맞추어 입은 한복은 13년이 지나도 살이 찌어도 여전히 맞는다는 진리를 발견하면서, 한국 사람의 융통성과 적응력의 탁월성은 매일 입는 의복을 통해서 체득되었던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한복 신학

신학교의 실천학 교수인 줄리어스 김 교수는 언뜻 보기에는 중국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나 구수한 뒤통 뉘레가 나는 2세이다. 한국인이 별로 없는 뉴포트비치에서 컸다는데, 가끔씩 한국말을 던지는 모습은 귀엽기까지 하다. 안식년을 맞아 한국에서 1년을 지낸 경험이 더욱 한국적인 것을 감사하고 자기의 뿌리를 분명히 하면서 교수로서, 그리고 2세 목사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자라나는

다. 사이즈 7이든 10이든, 한복은 다 적용한다. 이민자로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한국인의 투지 역시 상황적응력에 달려 있다고 할 때, 한복은 하나님이 한국인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사는 우리 한국인 성도들은 더 이상 적응하지 못한다는 토를 달아서는 안 된다. 어떤 인격의 굴곡도 덮는 그리스도의 의복과 한복까지 입는 한국인은 이 세계의 어느 민족보다 탁월한 적응력과 넓은 마음을 가져야하기 때문이다.



잊지 않는 글 중에 ‘고통 없는 사람의 마음이 비워지지 않는다. 비워 지지 않은 그 마음에는 삶의 울림도 없다’는 것에 공감한다. 고통과 역경을 겪으면서 인생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다. 김 영자(가명)는 술 취한 아버지에게 매를 맞아 쓰러진 엄마에게서 8개월도 안 되는 조산으로 세상에 태어났기에 발육이 느리고 아픈 데가 많고 공부의

시에 서울의 모 여학교의 영어 선생으로 취직을 하면서 생존경쟁이 심한 사회에 좀 더 깊이 들어섰다. 그곳은 상하와 서열이 엄격하고 학교 측에 협조하는 사람과 그 반대편에서 사사건건 비판하는 구름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몸을 사리며 자기 실속만을 챙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도 교육자의 모습이 흐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등분을 내어 놓았다. 그리고 사기죄로 형무소에 갔다 온 사실도 꺼내자 더 말을 못 하고 그 자리를 뒀다. 김영자는 서울에 올라와 병원에 입원하고 며칠 간 많은 생각을 했다. 자신의 태어 날 때부터의 불행, 교육기관의 추태, 사기꾼에게 걸려들어 육체와 마음을 다 빼앗긴 창녀 같은 자신의 모습, 거짓과 사기 그리고 악한 놈들

역경이 새사람을 만든다

진도가 다른 애들에 비해 처져서 찬 밥 신세였다. 그녀는 자신의 그 모습이 너무도 싫었다. 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공평하지 못 할까? 출발은 그 일생의 성패를 좌우 하는데 자신은 왜 남 보다 처진 출발을 해야 하는가?! 그녀는 자살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생각을 바꾸었다. 마치 빠른 토끼가 신나게 달리면서 느린 거북이를 비웃다가 잠들었다. 그러나 거북이는 그 수모를 개의치 않고 계속 달려 목적지에 먼저 가서 만세를 부른 것처럼 ‘나는 승리 하리라’ 결심하고는 우선 건강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뛰기를 시작하여 쉬는 날이 없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학의 영문과에 입학했다. 그때부터는 과외 교사를 하며 학비는 물론 부모님께 용돈까지 주며 대학을 졸업하고 동

그 와중에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인류대학을 나와 출판사를 한다는 이 사장을 소개받고 만나게 되었다. 묘하게도 만날 때 마다 그의 유머에 매력을 느끼고 또한 좋은 선물에 매혹되어 언제부터인가 만나면 저녁 먹고 호텔로 가는 것이 정한 코스가 되어 버렸다. 김 선생은 어느 주말에 이 사장이 사는 수원에 내려가 이 씨의 정체를 알아보고는 기절했다. 세상에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다가 내게 귀신처럼 붙었는가! 이 사장이라는 작자는 고등학교 출신에 인쇄기 한 대 놓고 겨우 살아가는 형편에 더욱이 아내와 자녀가 있는 소문 난 바람둥이란다. 배신에 치를 떨던 그녀는 이 사장을 불러내어 여전히 눈 하나 깜짝 안하고 거짓말을 태연스레 늘어놓는 그에게 호적

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한 사람들을 해치고 활개 치며 다니는 세상이 싫어지고 살의 욕망이 일어났다. 그래서 탈출구로 미국시민인 오빠의 초청으로 미국에 이민 왔다. 오빠가 하는 세탁소에서 일하며 모든 꿈과 욕심을 접고 오직 남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 생각으로 야간 신학교를 졸업하고 중형교회의 전도사로 일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또 한 번 실망한다. 정말 기록한 성직자도 있고 성실한 교인들도 있지만 차라리 목사가 안 되었으면 자신이나 교인들을 위해서도 좋았을 사람들이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장로라는 사람들이 교인들의 천국문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을 보며 슬퍼했다. 그러나 김 전도사는 새로운 교훈을 얻었다. 이란 왕궁의 현관을 장식한 거울 모자이크가

현순호 칼럼



현순호 목사 전 미국장로교회 중서부 지역 한인교회 총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품이 된 배경을 알고. 벽, 천장, 기둥이 모두 작은 거울로 모자이크 되었고 조명장치가 잘 되어 무지개 색깔로 반짝이는 현관은 전체가 아름다운 미술품이라고 한다. 그런데 원래의 계획은 거울판을 붙이는 것이었는데 그 계획이 바뀐 것이다. 유럽에 주문한 거울이 오는 도중에 부서져서 못 쓰게 되었다. 그 때에 한 미술가가 나타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깨어진 크고 작은 거울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맞추어 놓았더니 전혀 생각지 못한 새로운 작품이 된 것이다. 맞다. 자신도 여러 가지의 깨어진 상처들이 있지만 그것을 묶어서 남을 섬기는 일로 자신을 치유 하며 나아가서는 주위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삶의 보람을 느낀다.

기독일보, 아주관광의 협업 프로모션에 의한 특별가격!

출발일: 9월 27일, 10월 25일



기독일보와 아주관광이 함께하는

성지 순례

이스라엘 6박 7일

₩2800 \$2150

방문지: 텔아비브, 예루살렘, 마사다, 물란, 갈릴리, 가버나움, 베헤레헴, 가이사라

이스라엘/이집트/요르단 10박 11일

₩3300 \$2599

방문지: 카이로, 시나이산, 타바, 예일랏트, 페트라, 암만, 느보산, 예루살렘, 시해, 물란, 텔아비브, 옴바, 갈릴리, 가버나움

- 1. INCLUDE 갈릴리 유람선, 호텔/차량/식사 비용, 가이드, 국제선 항공권
- 2. EXCLUDE 비자 FEE, 이스라엘 출입국세, 뱃산으로의 국경통과시, 실로암 입장료
- 3. OPTION 시나이산 낙타등반, 홍해해저 수족관, 가이드/드라이버 TIP, 식당 TIP, 음료, 기타 개인 소비비용

※ 자세한 일정과 호텔/식사 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el. 213-388-4000

http://www.usajutour.com, aju@usajutour.com, ajutour@hotmail.com(LA본사) Fax, 213-387-1006 3053 W. Olympic Blvd., #101, Los Angeles, CA 90006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렵차, 일제차)

213-453-5900 / 714-329-3535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20년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 정육점의 원조 본점!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프라임과 초이스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 갈비 / 교회, 단체 특별가격!

▶ 불백엔거스 드라이빙 갈비살, 갈비, 꽃살
차돌배기, 유가능 흑돼지 삼겹살 등...

<자신있게 권해 드립니다!>

1134 S Western Ave #46 Los Angeles CA 90006 (메스런 + 11가 12가 사이)

웨스턴 11가점 Tel (323) 733-4677

한국방송+미국방송 동시 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 시내 ▪ 장거리 ▪ 귀국 ▪ 사무실 ▪ 창고이전 ▪ 포장이사

행복 이삿짐

고객에게 드리는 약속
항상 이소름... 항상 평평음... 항상 청결음...

작은일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Tel. 323-733-2433



삼척이 하면 다름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8122 Main Ave, #1, Los Angeles, CA 90001

HANMI MEDIA 녹음실

- 개인, 성가대 CD제작
- 설교 - 교회 - CD - DVD
- 영상 - 제작 편집



Tel. 323.661.8626 / hanmi-media.com
4418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lifornia 90004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말반신)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건과류, 각종 육산물 등)
- 각종 Tea (커피, 콩글레, 홍차, 녹차 등)

☎ 818-306-7652



무보험 가족을 위한 희소식 \$40 한달 온가족

비싼 병원비가 걱정되십니까?
건강보험은 너무 비싸 가입을 못하십니까?

당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1달 평균 넘는 의료금액으로 지급되는 American Workers Association에서 제공하는 Pro Patient Advocacy 플랜은 더 나은 보편비용 절감 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 \$40 한달 온가족
지금 전화 주세요

제임스 정 장로
EXECUTIVE DIRECTOR

Tel : 213, 725, 7217 세월즈 하실본 모임

블라인드 커튼 전문 업체

CITI BLINDS.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MR 박을 찾아주세요!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공정 적판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지!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Elsinore Hot Spring Resort
(951) 674-2581/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SK smart-naephone

- SK한국전화기를 설치, 한국전화번호를 받고 한국시내요금으로 미국, 한국 양방향 통화
- 서울전화번호만 누르세요
- 분당 2C의 저렴한 요금

Taurus System USA Inc.

문의: 213-435-0608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스탠포드 대학교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30여개국 해외진출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포드대학 (부속) 편강한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결혼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 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7월 29일

10개 기본창문 (헛릿차단 Low-E)
\$2,699+Tax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철공 콘크리트

웬스/자동차,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213-327-9929

조경공사 랜드스케이핑

연못, 징검다리, 분수, 폭포, 정원 인조석, 자연석

213-909-5518

한국 ₩ ↔ 미국 \$

당일 동시 (고액 전문) 소액도 가능합니다
T. 213-388-4989

한국은행 ▶ 미국은행 송금서비스 가능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 (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 (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K.KOH 루핑 Lic. #717364

모든 종류의 지붕

상업용 주택 아파트

- Roof Maintenance • Roof Certification • Roof Cleaning
- Partial Wood Repair • Balcony & Walk way deck • Waterproofing

지붕 박사 윤박사가 잘 훈련된 직원들과 함께 최상의 Service를 약속 드립니다.

• 무료견적 • 보험가입업체
(714)200-7552 (213)663-2306

컴퓨터 HIS.COM 출장수리전문

오픈기념 세일 컴퓨터 수리

start \$ **29**

- 컴퓨터 판매, 수리
- 컴퓨터 조립, 공구, 수리, 파일백업 및 관리
- DVR/IP CAMERA
- 4CH DVR \$1,199

213-810-4000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검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찌라

역대하 7:14



Jama National

PRAYER TOUR

김춘근 교수와 일행의 **전국기도순회**

2010년 8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이정아내
 김춘근

August 2010

- 8/5-8/2010 (Th-Sun) - Glendale (LA Choong Hyun Mission Church), CA
- 8/17/2010 (T) - Long Island Prayer Rally (Arumdaun Church), NY
- 8/18-21/2010 (W-Sat) - Manhattan, NY
- 8/22/2010 (Sun) - Queens Prayer Rally (PR), NY
- 8/25/2010 (W) - Wayne PR (Bethany Church), NJ
- 8/27/2010 (F) - Paramus PR (Pilgrim Church), NJ
- 8/28/2010 (Sat) - New Brunswick PR (Grace Community Chapel), NJ
- 8/29, 30/2010 (Sun, M) - Southern New Jersey PR, NJ
- 8/31-9/2/2010 (T-Th) - Philadelphia PR, PA

September 2010

- 9/7/2010 (T) - Providence PR / Brown, CT
- 9/8/2010 (W) - New Haven PR / Yale, RI
- 9/9/2010 (Th) - Harvard / M.I.T., MA
- 9/10/2010 (F) - Boston (Boston Univ. / Wellesley / Boston College), MA
- 9/11, 12/2010 (Sat, Sun) - Boston PR, MA
- 9/13/2010 (M) - Dartmouth, NH
- Smith / Univ. of Massachusetts, MA
- 9/14-15/2010 (T, W) - Cornell / SUNY Binghamton, NY
- 9/15/2010 (W) - NYU / Columbia / Queens PR, NY
- 9/16/2010 (Th) - Rutgers Univ PR / Princeton Univ., NJ
- 9/17, 19/2010 (F, Sun) - U Penn. / Temple / Philadelphia PR, PA
- 9/18/2010 (Sat) - Univ of Delaware / Delaware PR (Wilmington), DE
- 9/19/2010 (Sun) - Philadelphia PR, PA
- 9/23/2010 (Th) - Johns Hopkins / Univ. of Maryland, MD
- 9/23-24/2010 (Th-F) - Silver Spring / Rockville / Bethesda PR, MD
- 9/25/2010 (Sat) - Falls Church PR (Shining Star), VA
- 9/26/2010 (Sun) - Fairfax PR, VA
- 9/27, 28/2010 (M, T) - Blacksburg / Charlottesville, VA
- 9/29/2010 (W) - Raleigh / Durham PR / Duke / Univ of North Carolina, NC
- 9/30-10/1/2010 (Th, F) - Charlotte / Greensboro Conference, NC

October 2010

- 10/2/2010 (Sat) - Univ. of Tennessee, TN
- 10/3/2010 (Sun) - Nashville PR, TN
- 10/4/2010 (M) - Louisville / Univ. of Kentucky, KY
- 10/5/2010 (T) - Notre Dame / Indiana Univ. / Bloomington PR, IN
- 10/6/2010 (W) - Indianapolis PR, IN
- 10/7, 8/2010 (Th, F) - Univ of Illinois / Urbana - Champaign PR, MO
- 10/9/2010 (Sat) - Washington Univ / Saint Louis PR, MO
- 10/10/2010 (Sun) - Saint Louis PR, MO
- 10/11/2010 (M) - Univ. of Missouri, MO
- 10/12/2010 (T) - Kansas State Univ. / Univ. of Kansas, KS
- 10/13/2010 (W) - Kansas City PR, KS
- 10/14-18/2010 (Th-M) - to Monterey, CA
- 10/19, 20/2010 (T, W) - Univ. of Minnesota / St. Paul - Minneapolis PR, MN
- 10/21/2010 (Th) - Univ. of Wisconsin, WI
- 10/22/2010 (F) - Milwaukee PR, WI
- 10/23/2010 (Sat) - Chicago PR, IL
- 10/24/2010 (Sun) - Lakeview / Chicago PR, IL
- 10/25/2010 (M) - Univ. of Chicago / Wheaton College, IL
- 10/26/2010 (T) - North Western Univ, IL
- 10/27/2010 (W) - Ohio State Univ. / Cincinnati PR, OH
- 10/28/2010 (Th) - Cleveland PR, OH
- 10/29/2010 (F) - Akron PR, OH
- 10/30, 31/2010 (Sat, Sun) - Detroit PR, MI

November 2010

- 11/1/2010 (M) - Michigan State / Univ. of Michigan / Ann Arbor PR, MI
- 11/2-4/2010 (T-Th) - Toronto TLF, Canada
- 11/6, 7/2010 (Sat, Sun) - PR with MatchStrike, MD
- 11/8/2010 (M) - Penn State Univ., PA
- 11/9/2010 (T) - State College PR, PA
- 11/10/2010 (W) - Univ. of Pitts / Carnegie-Melon Univ. / Pitts. PR, PA
- 11/12-14/2010 (F-Sun) - New Hope Church Revival (Queens), NY
- 11/15-17/2010 (M-W) - New York EM/Youth Pastors GLF, NY
- 11/17/2010 (W) - Chodae PR, NJ
- 11/19-21/2010 (F-Sun) - Riverside Community Church Revival / PR, NJ

January 2011

- 1/14-16/2011 (F-Sun) - South Florida PR, FL
- 1/17/2011 (M) - Tampa Bay PR, FL
- 1/18/2011 (T) - Univ. of Florida, FL
- 1/19/2011 (W) - Orlando PR, FL
- 1/20/2011 (Th) - Florida State Univ, FL
- 1/21/2011 (F) - Jacksonville PR, FL
- 1/22, 23/2011 (Sat-Sun) - Atlanta Revival, GA
- 1/24-26/2011 (M-W) - Univ of Arizona (24) / Tucson TLF, AZ
- 1/27/2011 (Th) - to Monterey, CA

February 2011

- 1/31-2/3/2011 (M-Th) - New York Pastors TLF (Monterey), CA
- 2/4, 5/2011 (F, Sat) - Univ. of Georgia Retreat & PR, GA
- 2/6/2011 (Sun) - Atlanta PR, GA
- 2/8/2011 (T) - Emory Univ / Georgia Tech, GA
- 2/9-12/2011 (W-Sat) - JAMA Intercountry Prayer Conference (Atlanta), GA
- 2/13/2011 (Sun) - Huntsville PR, AL
- 2/14/2011 (M) - Univ. of Alabama / Auburn Univ., AL
- 2/15/2011 (T) - Louisiana State Univ / New Orleans PR, LA
- 2/16/2011 (W) - Little Rock / Oklahoma City PR, AR
- 2/17/2011 (Th) - Univ. of OK / Oklahoma State Univ., OK
- 2/18-20/2011 (F-Sun) - Dallas PR, TX
- 2/21/2011 (M) - Southern Methodist Univ / Killeen PR, TX
- 2/22/2011 (T) - Univ of Texas / Austin PR, TX
- 2/23/2011 (W) - Rice Univ / Houston PR, TX
- 2/24/2011 (Th) - Texas A&M Univ / College Station PR, TX
- 2/25-27/2011 (Th-F) - Phoenix Revival / PR, AZ
- 2/28/2011 (M) - Arizona State Univ, AZ

March 2011

- 3/4-6/2011 (F-Sun) - Las Vegas Revival / PR, NV
- 3/7-9/2011 (M-W) - Vancouver TLF, Canada
- 3/9/2011 (W) - Vancouver PR, Canada
- 3/10/2011 (Th) - Univ of Washington PR, WA
- 3/11/2011 (F) - Seattle PR, WA
- 3/12/2011 (Sat) - Tacoma PR, WA
- 3/13/2011 (Sun) - Portland / Beaverton PR, OR
- 3/14/2011 (M) - Univ of Oregon / Oregon State Univ, OR
- 3/16/2011 (W) - UC Davis / Sacramento State Univ / Davis PR, CA
- 3/17/2011 (Th) - UC Berkeley, CA
- 3/18/2011 (F) - San Francisco, CA
- 3/19, 20/2011 (Sat, Sun) - Silicon Valley PR, CA
- 3/21/2011 (M) - Stanford Univ, CA
- 3/21, 22/2011 (M, T) - Reno PR, NV
- 3/23/2011 (W) - UC Santa Barbara / Santa Barbara PR, CA
- 3/24/2011 (Th) - UCLA / USC PR, CA
- 3/25/2011 (F) - Los Angeles PR, CA
- 3/26/2011 (Sat) - UC Irvine / Orange County PR, CA
- 3/27/2011 (Sun) - San Diego PR, CA
- 3/28/2011 (M) - UC San Diego, CA
- 3/30/2011 (W) - Univ. of Colorado / Denver PR, CO
- 3/31/2011 (Th) - Colorado Springs PR, CO

April 2011

- 4/1, 2/2011 (F, Sat) - Seattle / Tacoma Youth Conference, WA
- 4/4-10/2011 (M-Sun) - Honolulu PR / Hawaii TLF, HI
- 4/15/2011 (F) - The final PR (Grace Korean Church? or LA area), CA

회개의 기도, 회복의 기도, 부흥의 기도.

JAMA의 핵심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운동은 1993년에 미국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나라로 가슴에 품고 미국의 회개와 부흥을 위한 기도의 부담을 받은 몇 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담은 1994년 JAMA의 대표인 김춘근 교수가 아내인 김성매 권사 그리고 아들 Paul과 함께 미국을 가슴에 품고, 42일동안 자동차로 12,000 마일 이상을 다니면서, 방문하는 각 도시를 위해 중보하고, 지역교회들과 연합하여 이 땅의 각성과 회개와 부흥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전국기도순회로 이어졌습니다. 1998년, 김춘근교수 부부와 강운영 목사는 80일간 2만 마일 이상을 운전하며 더 많은 도시들을 방문하고, 지역 교회들과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국토순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차례의 중보기도 순회는 JAMA의 결성과 설립에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요엘서 2장 12-14절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오늘날 이 미국과 대학의 참담한 현실을 보며 주님께서 주신 나라, 미국을 마음에 끌어안고 첫 장정을 떠난지 16년만인 2010년 8월 15일부터 175일간의 미국을 위한 기도순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 미국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 여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왼쪽에 방문 도시와 교회의 일정이 있습니다. 기도제목과 뉴스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들

- 기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기도순회가 되기를 위하여
 각 지역과 대학의 회개와 각성의 역사
 주님의 보호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 각 지역별로 도시와 도시사이의 구간을 기도하며 동행하실 분들 (자비부담)
- 각 지역/도시에서 기도순회팀의 숙소 (일정에 따라 3~5명의 숙소를 제공할 가짐)
- 방문지역에서 기도회/집회를 host 해주실 교회들
- 방문지역에 있는 대학/대학내 기독교 클럽들과의 연결
- 음식, gas등 기도순회를 위한 현금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HAS IT**

"최대 규모, 최다 차량 보유,
최신 장비 보유, 최고의 서비스, 최저 가격 보장"

북미에서 단일 딜러로 가장 큰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에쿠스 출시를 기념하여 기존 제네시스 리스하신 분들께 혜택을 드립니다. 제네시스 리스 리턴시 내셔야 하는 **DEPOSITION FEE(\$400)** 을 면제해 드리고, 재 리스시 **한달 할부금을 면제해** 드립니다.

목회자 특별리스 및 원가 세일

현재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들께 크레딧이 나쁘시거나, 없으셔도 특별 리스해 드립니다.
(단, 2010년 NEW 엘란트라와 2010 pre-owned 소나타 제한)

◦ 구입을 원하실 경우 전차종 원가 대우해 드립니다. ◦

7월 스페셜 세일

2011 최신형 현대 쏘나타
(O.A.C & PLUS TAX T.D.O \$2,399/12KMILE)
LEXUS만큼이나 좋은 차, 불티 납니다.
\$199/3YR STK:031704



2010 신형 제네시스
(O.A.C & PLUS TAX, INCENTIVE, TAX T.D.O \$2,999/12K MILE)
대형 세단의 중후함을 느껴 보세요.
\$399/3YR STK:101312



2010 신형 제네시스 COUPE M/T
(O.A.C & PLUS TAX, COMP, INCENTIVE T.D.O \$2,199/12KMILE)
스포츠 카의 최강자,
미래형 디자인과 힘을 느껴 보세요.
\$259/3YR STK:031622



2010 신형 엘란트라
(O.A.C & PLUS TAX, INCENTIVE, TAX T.D.O \$1,999/12K MILE)
(목회자 특별 리스 해당 품목)
중소형 세단으로 연비 절감 효과
\$159/3YR STK:049539



7월 중고차 매니저 스페셜

2007 BMW 328I WHITE STK:PZ70863 \$21,890	2008 NISSAN ALTIMA SILVER STK:P226495	2007 HYUNDAI AZERA LTD GRAY STK:P185167	2010 HYUNDAI SONATA WHITE STK:P586665
2009 HYUNDAI GENESIS BLACK STK:P018925 \$28,890	2009 TOYOTA SIENNA LE BLUE STK:P277257	2008 HYUNDAI AZERA LTD SILVER STK:P295894	2003 MINI COOPER CONV. PURPLE STK:S68848A
2005 NISSAN FRONTIER SILVER STK:P461103 \$10,890	2005 VOLVO S60 WHITE STK:S74836A	2009 HYUNDAI ELANTRA SILVER STK:P618846	2006 VOLVO S60 WHITE STK:S74836A
	2009 HONDA ACCORD WHITE STK:P021316A	2008 HYUNDAI ENTOURAGE GRAY STK:P052717	2008 NISSAN ALTIMA GRAY STK:P199144
	2007 CHRY TOWN&COUNTRY RED STK:P304471	2009 HYUNDAI GENESIS SILVER STK:P031934	
	2005 HONDA PILOT EX BLACK STK:0251338A	2009 HYUNDAI GENESIS WHITE STK:P048693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19.99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세일즈 시간 월~토요일 9:00am~9:00pm
일요일 10:00am~8:00pm
서비스 시간 월~토요일 7:30am~6:00pm
일요일 8:00am~2:00pm
"서비스는 친절함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PH 푸엔테힐스 현대 T. 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 WWW.PHHYUNDAI.COM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Highest level of peace of mind. See your dealer for details. Visit us at Hyundai.com